

임금체불, 산재 등 무료 노동상담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합니다.



1p Korea 한국	5p Nepalese 네팔어	9p Kyrgyzstan 키르기스어	13p Khmer 캄보디아어
2p Chinese 중국어	6p Singhalese 스리랑카어	10p Russia 러시아어	14p Philippines 필리핀어
3p Burmese 미얀마어	7p Mongolia 몽골어	11p Bengali 벵갈어	15p Tieng Viet 베트남어
4p Thai Language 태국어	8p Uzbekistan 우즈베크어	12p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E 16p English 영어

권리 보장 없이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리는 잘못된 정책, 바뀌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는 ‘숫자 확대’만 있고 ‘권리 보장’은 없다. 산업 현장과 사장들이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는 물건처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노동 착취와 차별에 시달리는 열악한 조건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E-9 고용허가제 노동자 입국 쿼터를 사상 최대인 11만명으로 정했다. 계절노동자는 상반기에만 약 2만 7천명을 새로 들여오게 한다. 또 조선업에 1만 4천명이 부족하다면서 용접, 전기, 도장 분야 E-7비자 노동자도 수천 명 입국시키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고용허가제에 ‘장기체류 특례’를 만들어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조건을 채워서 일하면, 출국 없이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인권 수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노동권과 인권 보장 요구에는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용주의 요구만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제조업도, 농업도, 어업도, 건설업도, 서비스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내국인 노동력이 줄어들고,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이주노동자를 더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산업에서 고용주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였다.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코로나 재난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개선하지도 않고 보장해 주지도 않는 것인가!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리고, 기계나 노예처럼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노동자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해야 한다. 산재로 죽지 않도록 노동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체불 당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폭언, 폭행, 차별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체, 노동조합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자.

정영섭(이주노조 활동가)

노동부는 창고 말고, 농막 말고, 합법적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직장을 소개하라!



2020년 말,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즉, 여전히 약 70%의 이주노동자들이 ‘집이 아닌 곳’에 살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현재 ‘인구 절벽’ 상태라고 한다. 출산율이 0.7% 정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같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점점 더 줄고 있고, 젊은 선주민들은 더 이상 ‘작은 제조업체’이나,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는다. 이런 업체들이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살아갈 주택도 별로 없고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

하다. 그런데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의 변두리나,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만 구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그런 곳의 일자리만 소개받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면 비자를 박탈당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할 숙소는 어떤 집인가? 그 집은 ‘주거 시설’로 등록된 집인가, 아니면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창고 같은 임시가건물인가?

한국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11만 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계절노동자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을 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도 마땅한 숙소가 없는 지역과 마을에 있는 사업장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와 일하게 하겠다는 것

이다. 그 지역에 갑자기 ‘합법적인’, ‘등록된’ 집이 생겨날 수 있을까? 결국, 또 고용주들은 기존에 있던 좁은 방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살게 하고, 불법적인 임시가건물을 늘릴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 알선 책임자인 한국 노동부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고용주 측의 요구에는 재빠르게 반응하여 그 도입규모를 대폭 늘렸지만, 그 노동력이 곧 ‘사람’이고 ‘노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우리는 기계, 농기계, 생산자재가 아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요구해야 하겠다.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2월 26일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부합동단속으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기간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장에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서 농촌, 공장, 서비스업종에서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니 신규 노동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면서 힘들게 코로나 시기에 묵묵히 일해온 미등록 이주노동

자를 내쫓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한국 정부는 야만적이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대략 40만명이다. 이들이 왜 미등록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뛰쳐 나오면 미등록이 된다. 농어촌에는 야간, 연장을 해도 수당이 없다. 그래서 공장에 비해 월급이 반밖에 안 되어 사업장을 뛰쳐나오면 미등록이 된다. 미등록이 되는 것이 이주노동자 개인의 잘못인가? 한국의 법제도가 잘못되었는가? 나쁜 법을 고치지 않고 나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은 선진국 답지 않다.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필요없는가? 묻고 싶다. 한국 노동자가 꺼리고 등록 이주노동자가 꺼리는 일자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일자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사회는 멈춘다. 우리가 일자리를 두고 누구와 다투고 있는가? 가장 열악한 현장

의 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큰 범칙금인 추방금을 하지 말고 폭력적이고 반 인권적으로 잡아서 강제로 보내는 단속은 이제 그만해라! 대구에서는 2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11시에 대구출입국 앞에서 단속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매일 대구경북지역 노동, 인권 단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에서의 항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함께 항의를 해나가자. 투쟁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같이 투쟁해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향상시켜나가자. 강제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없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투쟁!

김용철(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



提供拖欠工资及 产灾等免费劳动咨询 金属劳动工会与移住劳动者在一起。

在没有保障的情况下，只增加移住劳动者人数的政策是错误的，应该改变！

정영섭 (移住劳动工会活动家)

在尹锡悦政府实施的移住劳动者政策中只有“增加人数”却没有“权力保障”。由于产业现场与老板们的所需把移住劳动者当作物品一样扩大供应，但是饱受劳动剥削和歧视的恶劣条件却没有得到改善。政府将今年的E-9雇佣许可制劳动者入境配额定为有史以来最高的11万名。季节劳动者仅上半期就新增了2万7千名。另外，以造船产业缺少1万4千名劳动者为由，计划让数千名焊接、电气、涂装领域的E-7签证劳动者入境。另一方面，在雇佣许可制度里新设了“长期滞留特例”，制定了如果在同一会社满足一定的条件工作的话，就可以不用出境连续工作10年以上的制度。但是对于移住劳动者所处的恶劣的劳动条件、较低的人权水准，几乎没有要改善的计划。这是因为政府不倾听移住劳动者的声音、对劳动权及人权保障的要求，只满足雇主的要求而导致的。但所有人都知道，如果没有移住劳动者的话，韩国的制造业、农业、渔业、建筑业、服务业都是无法正常运转的。由于国



内劳动力的减少，他们不从事3D(脏、危险、累)劳动，导致韩国的经济更需要移住劳动者。

特别是在新冠疫情期间，在移住劳动者工作的产业，雇主们到处说缺少人力。在新冠疫情期间充分地证明了移住劳动者有多重要。但是为什么政府即不改善移住劳动者的权力，也不保障他们的权力呢！难道政府认为只增加移住劳动者的人数，让他们像机器

和奴隶一样工作就可以了嘛！

移住劳动者也同样是人，也同样是劳动者。他们是在韩国社会工作生活的同一社会成员。应该保障他们变更会社的自由。应该保障能够像人一样生活的宿舍。应该保障他们的劳动安全，以免死于产灾。应该正当地适用法律，保障正常领取薪金以免被拖欠工资。应该制定<禁止歧视法>，以免遭受恶言、暴行、歧视。所有工作的移住民的人权和劳动权都应该得到保障。应该修订错误的政策。与移住劳动者团体、劳动工会共同呐喊行动吧。

“劳动部！介绍提供合法的居住设施的职场吧！不要仓库，不要窝棚！”



김이찬 (地球人的停留站]活动家)

2020年年末，劳动部曾发布过的调查结果称，有70%以上的移住劳动者生活在用‘夹心板’或‘集装箱’建的‘临时建筑物’里。从那以后虽然已经过去了两年多了，但仍没有关于如何改善这个问题的消息。也就是说仍然有约70%的移住劳动者生活在‘不是建筑物的地方’劳动。

据说韩国社会目前处于‘人口悬崖’的状态。出生率仅为0.7%，居世界最低水平。除了像首尔和首都圈一样的大城市以外，从事经济活动的人口正在逐渐减少，年轻的韩国人不再去‘小型制造业’、‘农畜产业’、‘建筑业’等的工作岗位去就业了。在这些企业所在的地区，没有多少人可以居住的住宅，而且

生活便利设施也不足。

但是大部分移住劳动者们只能在青年人口减少的城市边缘、农渔村地区找到工作。只介绍给雇佣许可制劳动者这样地方的工作岗位，如果在未被允许的会社就业的话，签证就会被取消。你们生活的地区，还有雇主提供的宿舍是什么样的呢？是被登录为‘居住设施’的房子？还是像集装箱或夹心板、仓库一样的临时建筑物呢？

韩国政府表示，今年将新引进11万名雇佣许可制移住劳动者入境。加上季节劳动者的话，会有更多的劳动者们来到韩国进行移住劳动。也就是说到现在为止，将把更多的移住劳动者送到至今为止连合法的宿舍都没有的地区和农村的会社里让他们去工作。在

这样的地区会突然冒出来‘合法的’、

‘登录的’房子吗？到最后，雇主们会让更多的劳动者住在现有的狭窄的房间里、增建非法临时建筑物。移住劳动者的生活和健康会更加恶化。

给移住劳动者介绍工作的负责处是韩国劳动部，他们对雇主一方提出的需要‘劳动力’的要求给予尽快回应，大幅度增加引进规模，但对劳动力也是‘人’，也是‘劳动者’这一事实却睁一只眼闭一只眼。

移住劳动者们应该一起要求呐喊‘我们不是机器、不是农机械、也不是生产材料！我们是人！不要给我们提供人没法居住的临时建筑物，而是要保障给我们介绍能让我们在像人一样生活的房子里生活的工作岗位！’

反对严打驱逐未登录移住劳动者。



김용철(金属劳动工会大邱支部 城西工团地区支会 商谈所长)

法务部在2月26号发表将对未登录移住劳动者进行严打。这次是从3月2号到4月30号实施的为期两个月的政府联合严打。特别是此次严打的方针是也将对会社进行管制。在新冠疫情期间三年的里，由于移住劳动者的不足，农村、工厂、服务业领域都面临了很大的困难。但是现在，解除了新冠疫情的限制后，招聘了大量的新入境劳动者，却将在新冠疫情期间辛苦地默默付出劳动的未登录移住劳动者赶出

去。需要的时候雇佣，不需要的话就赶出去，韩国政府是野蛮的。

目前大约有40万名未登录移住劳动者。让我们了解一下他们为什么会成为未登录。在雇佣许可制下，由于变更不了会社，所以逼不得已地逃出会社的话，就成了未登录了。在农村渔村工作的劳动者，即使是上夜班加班的话也没有加班费。所以工资只有在工厂上班的人工资的一半，因此逃出来的话就会成为未登录。成为未登录是移住劳动者个人的过错吗？还是韩国的法制制度的问题？不修改错误的法律，不遵守错误的法律就说是“非法”，因此来严打未登录移住劳动者这不是发达国家的做法。难道真的不感到害羞吗？

我想问的是：不需要未登录移住劳动者吗？韩国劳动者忌讳的、登录移住劳动者也忌讳的工作岗位就是未登录移住劳动者的工作岗位。如果没有未登录移住劳动者的话，韩国社会就会停下来。不管我们针对工作岗位和谁

争，环境最恶劣的现场的工作都是未登录移住劳动者的活儿。未登录劳动者们总有一天也会回到自己的国家。会回到亲爱的家人和朋友的怀抱里。所以不要因为超过了滞留期就把他们当作犯了什么大罪一样对待，不要再进行暴力性、反人权性的严打了。

在大邱，从2月17号开始，每周五11点在大邱出入境前举行反对严打的集会，每天大邱庆北地区劳动、人权团体们都会轮流进行抗议示威。

希望在大邱进行的抗议能够扩散到全国。我们都联系在一起，在全国各地的朋友们和我们一起进行抗议吧。如果不进行斗争就不会改变。让我们一起斗争，一起提高移住劳动者的劳动权和人权吧。

立即停止强制严打驱逐！让未登录劳动者合法化！废除连变更会社的自由都没有的雇佣许可制！斗争！



လုပ်အားခ မရရှိခြင်း၊ လုပ်ငန်းခွင်ထိခိုက်မှု စသည့်တို့အား အခမဲ့ အကြံပေးခြင်း

သတ္တုအလုပ်သမားသမဂ္ဂ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နှင့် တစ်သားတည်းရှိပါသည်။ ၀၂)၂၆၇၀-၉၅၈၇

အခမဲ့အရေးအာမခံချက်မရှိ ရွှေ့ပြောင်းအလုပ်သမားဦးရေကိုသာ တိုးလာစေသည့် မှားယမ်းသော မူဝါဒကို ပြောင်းလဲရမည်။

ကျောင်းယောင်းဆောင် (ရွှေ့ပြောင်းအလုပ်သမားသမဂ္ဂ တက်ကြွလှုပ်ရှားသူ) ယန်ဆောဂေါယာ အစိုးရ၏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ဆိုင်ရာ မူဝါဒတင် 'အေရအွတ်တက်တိုးချဲ့ခြင်း' သာရှိပြီး 'အခမဲ့အရေးအာမခံချက်' မရှိပါ။ စက်မှုလုပ်ငန်းများနှင့် အလုပ်ရှင်များထံ လိုအပ်နေ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ကို ကုန်ပစ္စည်းကုန်သွယ်မှု တိုးချဲ့ထောက်ပံ့ပေးမည် ဟု ဆိုသော်လည်း အလုပ်သမား ခေါင်းပုံဖြတ်မှုနှင့် ခြိမ်းခြောက်ဆဲခံရမှုများကြောင့် ဖြစ်ပါလာရသည့် ဆင်းရဲနွမ်းပါးသည့် အခြေအနေများမှာ တိုးတက်လာသေးပေ။ အစိုးရက ယခုနှစ်တင် E-9 လုပ်သား ပြည်တွင်းခွင့်ကို အမြင့်ဆုံး အေရအွတ်တက် ၁၁၀၀ ခန့်သာ အထိ သတ်မှတ်လိုက်ပြီး ရာသီချိန် အလုပ်သမားများကို ပထမနှစ်ဝက်တင်ပင် ၂၇,၀၀၀ ဦး အသစ်ဝင်ရောက်ခွင့် ပြုခဲ့သည်။ ထို့အပြင်၊ သေဘာတရားဆောက်လုပ်ရေး တင် လုပ်သားဦးရေ ခေတ္တလုပ် လိုအပ်သည်ဟုဆိုကာ ဂေဟေဆာ၊ လျှပ်စစ်နှင့် ဓာတ်အား နယ်ပယ်များအတွက် ထောင်ပေါင်း များစွာသော E-7 ဗီစီ လုပ်သားများကို ခေါ်ယူရန် ကြိုးပမ်းလျက်ရှိသည်။ တစ်ဖက်တင်လည်း အီးဒိုင်းစနစ် "ကာလရှည် အထူးဗီစီစနစ်" ကို ဖန်တီးကာ ကုမ္ပဏီတစ်ခုထွက် သတ်မှတ်ချက်များနှင့် ကိုက်ညီစွာ အလုပ်လုပ်ကိုင်ပါက နိုင်ငံမှ ထွက်ခွာခြင်းမရှိဘဲ ၁၀ နှစ်ကျော် ဆက်တိုက်လုပ်ကိုင်နိုင်မည့် စနစ်တစ်ခုကို ဖန်တီးပေးမည်ဟု ဆိုသည်။

သို့သော်လ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နိမ့်ကျဆုံးရောင်းသော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များနှင့် လူ့အခွင့်အရေး အဆင့်နိမ့်ပါးမှုကို တိုးတက်စေရန် အစီအစဉ်များ မပါရှိချေ။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သံ၊ အလုပ်သမားအခွင့်အရေးနှင့် လူ့အခွင့်အရေး အာမခံချက် တောင်းဆိုမှုအပေါ် အစိုးရမှ နားထောင်ပေးခြင်း မရှိပဲ အလုပ်ရှင်များ၏ တောင်းဆိုချက်များကိုသာ နားထောင်သောကြောင့်ဖြစ်သည်။ သို့သော်လည်း ကိုရီးယားနိုင်ငံ၏ ကုန်ထုတ်၊ စိုက်ပျိုးရေး၊ ငါးဖမ်း၊ ဆောက်လုပ်ရေးနှင့် ဝန်ဆောင်မှုလုပ်ငန်းများ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မရှိဘဲ မလည်ပတ်နိုင်သည်ကို လူတိုင်းသိပါသည်။ ပြည်တွင်းလုပ်သား အင်အား



သား တိုးမြှင့်ပြီး စက်ပစ္စည်း သို့မဟုတ် ကျွန်ုပ်တို့အား အလုပ်လုပ်ရန်သာ လိုအပ်သည်ဟု သတ်မှတ်ထားတာလား။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လည်း လူသားများဖြစ်ကာ တူညီသော အလုပ်သမားများဖြစ်ပါသည်။ ကိုရီးယား လူ့အဖွဲ့အစည်းတင် အလုပ်လုပ်ရင်း နေထိုင်ကြသည့် တူညီသော လူ့အဖွဲ့အစည်း၏ အဖွဲ့ဝင်များဖြစ်ပါသည်။

လုပ်ငန်းခွင် လတ်လပ်စွာ ပြောင်းရွှေ့ခွင့် အာမခံချက်ရှိရပါမည်။ လူသားများလို နေထိုင်နိုင်မည့် အိမ်ဆောင် အာမခံချက် ပေးဖို့လိုအပ်ပါသည်။ စက်မှုမေတာတဆူကြောင့် အသက်စွန့်စေရန် လုပ်ငန်းခွင် ဘေးကင်းလုံခြုံရေး အာမခံချက်ရှိရမည်။ နောင်နှေးနှေးရှိသည့် လုပ်အားခများ မှန်ကန်စွာ ရရှိနိုင်ရန် ဥပဒေအား စနစ်တကျ ကျင့်သုံးရမည်။ နှုတ်ဖြင့် စော်ကားခြင်း၊ ကိုယ်ထိလက်ရောက်ခြင်း၊ ခြိမ်းခြောက်ဆဲခံခြင်းတို့ မခံရ စေရန် ခြိမ်းခြောက်ဆဲခံမှု ဆန့်ကျင်ရေး ဥပဒေတစ်ရပ်ကို ပြဌာန်းရမည်ဖြစ်သည်။ ရွှေ့ပြောင်း အလုပ်သမား အားလုံး၏ လူ့အခွင့်အရေးနှင့် အလုပ်သမားအခွင့်အရေးများကို အာမခံချက်ပေးရမည်။ မှားယမ်းသော မူဝါဒများကို ပြောင်းလဲရမ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အဖွဲ့အစည်းများ၊ အလုပ်သမားသမဂ္ဂများနှင့် အတူ အသံများထုတ်ဖော်ကာ လုပ်ရှား ဆောင်ရွက်ကြပါစို့။

လျာနည်းလာပြီး 3D (ညစ်ပတ်၊ အန္တရာယ်များ၊ ခက်ခဲ) အလုပ်များအား မလုပ်နိုင်ခြင်းကြောင့် ကိုရီးယားစီးပွားရေးတွင်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ပိုမိုလိုအပ်လာနေပါသည်။

အထူးသဖြင့် ကိုရီးယားလူအဖွဲ့တင်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လုပ်လုပ်ကိုင်သည့် လုပ်ငန်းများတွင် လူအင်အားနည်းပါးမှုကြောင့် အလုပ်ရှင်များသည် နေရာအနှံ့တင် ရုတ်ရုတ်သံသ ဖြစ်ခဲ့ရပါသည်။ ဤမျှ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ရေးပါမှုကို ကိုစစ်ကပ်ဘေးကာလက အတည်ပြုပေးခဲ့သည်။ သို့သော် အစိုးရမှ ရွှေ့ပြောင်းလုပ်သားများ၏ အခွင့်အရေးကို ဘာကြောင့် တိုးတက်အောင် မလုပ်ပေးတာ ဘာ အာမခံချက်မှ မပေးတာပါလဲ။ ရွှေ့ပြောင်းအလုပ်သမား အေရအွတ်တက်ကို

"အလုပ်သမားရုံးမှ ဝိုင်းရံ၊ လယ်တဲ မဟုတ်သော တရားဝင်အိမ်ရာထောက်ပံ့သည့် လုပ်ငန်းများနှင့်သာ အလုပ်မက်ဆွေချင်ချပေးပါ"

ဂင်မ်အီချိန်း (ကမ္ဘာ့သားတို့ရဲ့ မှတ်တိုင်) တက်ကြွလှုပ်ရှားသူ ၂၀၂၀ နှစ်ကုန်ပိုင်းတွင် ရွှေ့ပြောင်းအလုပ်သမား ၇၀% ကျော်သည် 'အေဘွတ်အဆက်အသွယ်' သို့မဟုတ် 'ကုန်တိုက်' ဖြင့် ပြုလုပ်ထားသော 'ယာယီအဆက်အသွယ်' များတွင် နေထိုင်ကြရသည်ဟု အလုပ်သမား ဝန်ကြီးဌာနမှ စုံစမ်းစစ်ဆေးမှုရလဒ်များကို ကြေငြာခဲ့ဖူးသည်။ ထိုအချိန်မှ ၂၀၂၀ ကျော်ကာ သားသော်လည်း မည်သို့မည်ပုံ တိုးတက်လာသည်ကို မူ သတင်းအစအန မကြားရတော့ချေ။ တစ်နည်းဆိုရသော် ရွှေ့ပြောင်း အလုပ်သမား ၇၀% ခန့်သည် 'အိမ်မဟုတ်သောနေရာ' တင် နေထိုင်ပြီး အလုပ်လုပ်နေကြရဆဲဖြစ်သည်။

လက်ရှိကိုရီးယားလူ့အဖွဲ့အစည်းသည် 'လူဦးရေ ချောက်ကမ်းပါး' တင်ရောက်နေသည်ဟုဆိုကြသည်။ ဧကလား ဖွဲ့စည်းပုံ ၀.၇% ဖြင့် ကမ္ဘာပေါ်တွင် အနိမ့်ဆုံး အခြေအနေဖြစ်နေသည်။ ဆိုးလိန်နဲ့ မြို့ကြီးများကဲ့သို့ မြို့ပြဧရိယာများမှလွဲ၍ စီးပွားရေးလုပ်ငန်းများတွင် ပါဝင်လုပ်ကိုင်သည့် လူဦးရေမှာ တဖြည်းဖြည်း လျော့နည်း လာပြီး၊ လူငယ်များအနေဖြင့် 'အသားစားကုန်ထုတ်လုပ်မှု'၊ 'စိုက်ပျိုးရေးမြို့ရား'နှင့်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များ'တွင် အလုပ်လုပ်နိုင်ကြတာပါ။ ထိုလုပ်ငန်းကုမ္ပဏီများ တည်ရှိရာ ဒေသများတွင် လူနေထိုင်ရန်အိမ် များများစားစား မရှိသည့်အပြင် လူမှုဘဝ အ

ဆင်ခြေပစ္စည်း နေရာများ လုံလောက်မှုမရှိပေ။ သို့သော်လ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အများစုသည် လူငယ်ဦးရေ ကျဆင်းနေသည့် မြို့စနစ်နှင့် ကျေးလက် ဒေသများ တင်သာ အလုပ်အကိုင် ရှာဖွေနိုင်ကြသည်။ အီးဒိုင်း အလုပ်သမားများလည်း ထိုသို့သောနေရာများ အတွက်သာ အလုပ်မက်ဆွေချိ ရရှိကြပြီး ခွင့်ပြုချက်မရှိဘဲ အလုပ်ခွင့်တင် အလုပ်လုပ်ပါက ဗီစီ ရုတ်သိမ်းခံကြရပြန်သည်။ သင်နေထိုင်သည့်နေရာနှင့် သင့်အလုပ်ရှင် ပေးထားသည့် အိမ်ယာအခြေအနေ ဘယ်လိုရှိပါ သလဲ။ ထိုအိမ်သည် 'လူနေထိုင်ရန်'အဖြစ် မှတ်ပုံတင်ထားသလား။ သို့မဟုတ် ကုန်တိုက်မှာ အေဘွတ်အဆက်အသွယ်၊ ဝိုင်းရံကဲ့သို့သော ယာယီအဆက်အသွယ်လား။

ကိုရီးယားအစိုးရသည် ယခုနှစ်အတွင်း အီးဒိုင်း ရွှေ့ပြောင်းအလုပ်သမားအသစ် ၁၁၀၀၀ ခန့် ခေါ်ယူရန် စီစဉ်နေပါသည်။ ရာသီချိန် အလုပ်သမားများပါ ပေါင်းလိုက်ပါက မြောက်များလှသော ရွှေ့ပြောင်းအလုပ် သမားများ ကိုရီးယားသို့ လာရောက်လုပ်ကိုင်ကြမည်ဖြစ်သည်။ တစ်နည်းအားဖြင့် ယခုအချိန်အထိ သင့် လျော်သော နေရာထိုင်ခင်းမရှိသည့် ဒေသများနှင့် ကျေးရာများရှိ အလုပ်ခင်းများသို့ ရွှေ့ပြောင်းအလုပ် သမားများအား ဝိုင်းဆောင်အလုပ်ခိုင်းစေမည်ဖြစ်သည်။ ထိုဒေသများတွင် 'တရားဝင်'၊ 'မှ

တ်ပုံတင်ထားသော' အိမ်များ ရုတ်တရက် ပေါ်ပါက လာနိုင်မလား။ နောက်ဆုံးတွင်၊ အလုပ်ရှင်များသည် လက်ရှိ အခန်းကျဉ်း လေးများမှာပဲ များပြားလှသော အလုပ်သမားများကို နေထိုင်စေမည့် တရားဝင် ယာယီ အဆက်အသွယ် များသာ ပိုများလာလိမ့်မည်ဖြစ်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၁၀၀ နှင့် ကျန်းမာရေးသည်သာ ပိုမို ဆိုးရွားလာပါမ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ကို အလုပ်မက်ဆွေချိပေးရန် တာဝန်ရှိသည့် အလုပ်သမားဝန်ကြီးဌာနသည် အလုပ်ရှင်များ၏ 'လုပ်သားအင်အား' တောင်းဆိုမှုများအပေါ် လျင်မြန်စွာ တုံ့ပြန်သောအားဖြင့် လုပ်သား အများအပြား တိုးမြှင့်ခေါ်ယူပေးနေပြီး ထိုအလုပ်သမားအင်အားစုသည် 'လူသားများ' 'အလုပ်သမားများ' ဖြစ်သည်ဟုသော အချက်ကိုတော့ မျက်ကယ်ပြုလျက်ရှိနေပါ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အနေဖြင့် "ငါတို့သည် စက်ယန္တရားများ၊ လယ်ယာသုံး စက်ပစ္စည်းများ၊ ထုတ်ကုန်များ မဟုတ်! လူသားများဖြစ်သည်! လူနေထိုင်လို၊ မရဘဲ ယာယီအဆက်အသွယ် မဟုတ်ပဲ၊ လူသားဆွန့်စာ နေထိုင်အလုပ်လုပ်ကိုင်နိုင်မည့် လုပ်ငန်းခွင်ကို အာမခံချက်ပေးပါ" ဟု အမြဲမပြတ် အတူ တောင်းဆိုသားကြရပါမည်။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အား ဖမ်းဆီးခြင်းနှင့် ပြည်နှင်ဒဏ်ပေးခြင်းကို ဆန့်ကျင်သည်။



ဂင်မ်ယိုးချောလ်(သတ္တုအလုပ်သမားများသမဂ္ဂ ဒေဂူးနယ် ဆောင်းဆော်စက်မှုနှင့် အကြံပေးဥက္ကဋ္ဌကြီးရေးမှူး)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အား ဖမ်းဆီးနှိမ်နင်းသားမည် ဟု တရားရေးဝန်ကြီးဌာနမှ ဖေဖော်ဝါရီ ၂၆ ရက်တင် ကြေညာခဲ့ပါသည်။ အစိုးရနှင့် ပူးပေါင်း ဖြိုခင်းမည်ဖြစ်ပြီး မတ်လ ၂ ရက်မှ ၉၊ ပီလ ၃၀ ရက် အထိ နှစ်လတာကာလဖြစ်ပါသည်။ အထူးသဖြင့် ယခုတစ်ကြိမ်သည် လုပ်ငန်းခွင်များအတွင်းထိ ဝင်ရောက် ဖမ်းဆီးမည် မူဝါဒဖြစ်ပါသည်။ ကိုရီးယားကာလ ၃ နှစ်တာအတွင်း ရွှေ့ပြောင်း အလုပ်သမားများ ရှားပါးလာသောကြောင့် ကျေးလက်စိုက်ပျိုးဒေသ၊ စက်ရုံများ၊ ဝန်ဆောင်မှုလုပ်ငန်းများတွင် အခက်အခဲ များစွာရှိခဲ့ ပါသည်။ သို့သော် ယခုအခါ ကိုရီးယားသမားများမှ ရုတ်သိမ်းလိုက်ပြီး လုပ်သားသစ် အမြောက်အမြား

ဝင်ရောက်လာပြီး ကိုရီးယားကာလ ပင်ပန်းစွာ အလုပ်ကြိုးစားခဲ့ကြသော ဗီစီမဲ့ ရွှေ့ပြောင်း အလုပ်သမားများ အား နှင်ထုတ်နေခြင်းဖြစ်သည်။ လိုအပ်ချိန်သုံး၍ မလိုအပ်သည့်အခါ စနစ်တကျ ကိုရီးယားအစိုးရ၏ ရိုင်းစိုင်းသည့် အပြုအမူဖြစ်ပါသည်။ လက်ရှိတင်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 ၄ သိန်းခန့်ရှိပါသည်။ ဘာကြောင့် ဗီစီမဲ့ရှိရသလဲ ကြည့်ကြစို့။ လုပ်သားငှားရမ်းမှု အီးဒိုင်းစနစ်အရ လုပ်ငန်းခွင် ပြောင်းရွှေ့ရန် မဖြစ်နိုင်သောကြောင့် လုပ်ငန်းခွင်မှ မလွှဲ မေ့ရှောင်သွား ထွက်ခွာပါက ဗီစီမဲ့သူ ဖြစ်သားပါမည်။ လယ်ယာလုပ်ငန်းနှင့် တံငါလုပ်ငန်းများတွင် ညအချိန် သို့မဟုတ် အချိန်ပိုလုပ်ပါက အပိုခေလောင်းကြေး မရရှိပါ။ ထို့ကြောင့် စက်ရုံ အလုပ်နှင့် ယှဉ်ပါက လစာ ထက်ဝက်သာ ရသဖြင့် လုပ်ငန်းခွင်မှ ထွက်ခွာမည်ဆိုလျှင် ဗီစီမဲ့သူဖြစ်သားပါမည်။ ဗီစီမဲ့အလုပ်သမား ဖြစ်ရခြင်း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 တစ်ဦးချင်းစီ၏ အပြစ်လား ကိုရီးယား ဥပဒေစနစ်၏ အမှားလား။ မေကောင်းသောဥပဒေများကို မပြင်ဆင်ပဲ ဥပဒေဆိုးများကို မလိုက်နာခြင်းကြောင့် "တရားမဝင်" ဟူ၍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ကို ဖမ်းဆီးဖြိုခင်းသည် ဖြစ်ပြီးနိုင်ငံမိသလဲ။ တကယ်ကို မရက်တတ်သလား။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 တကယ်မလိုအပ်ဘူးလား။ မေးချင်ပါသည်။ ကိုရီးယားအလုပ်သမားနဲ့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လုပ်ကိုင်ရန် တုံ့ဆိုင်းနေသော နေရာများသည် ဗီစီမဲ့ အလုပ်သမားများ၏ အလုပ်နေရာဖြစ်သည်။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 မရှိပါက ကိုရီးယားလူ့အဖွဲ့အစည်း ရပ်တန့်သားပါ လိမ့်

မည်။ ငါတို့တွေ အလုပ်နေရာတစ်ခုအတွက် ဘယ်သူတွေနဲ့ ရန်ဖြစ်နေကြသလဲ။ နိမ့်ကျဆုံးရောင်းသုံး အလုပ်အကိုင်နေရာဟာ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တွက်ပါပဲ။ ဗီစီမဲ့ ရွှေ့ပြောင်းအလုပ်သမား များလည်း သူတို့နိုင်ငံကို တစ်နေ့နေ့ ပြန်သားကြမှာပါ။ ချစ်တဲ့မိသားစုနှင့် သူငယ်ချင်းများ၏ ရွှင်ခင်ဆီ ပြန်ကြမှာပါ။ သို့သော် ဗီစီမဲ့သက်တမ်းကို ကျွန်ုပ်တို့လည်းဆိုသည်နှင့် ရာဇဝတ်သားကို ဆက်ဆံသလိုမျိုး၊ လူ့အခွင့်အရေးကို ဆန့်ကျင်ကာ အကြမ်းဖက် ဖမ်းဆီးခြင်းမျိုး၊ အတင်းအကျပ် နှင်ထုတ်ခြင်းမျိုးကို ချက်ခြင်း ရပ်တန့်လိုက်ပါတော့။ ဒေဂူးမြို့၊ လူဝင်မှုကြီးကြပ်ရေးရုံးရွှေ့တင် ဖော်ဝါရီ ၁၇ ရက်မှ စတင်၍ အပတ်စဉ် သောကြာနေ့ တိုင်း မနက် ၁၁ နာရီတင် ဖမ်းဆီးမှုအား ဆန့်ကျင်သည့် လူထုထုဝေးပွဲကို ပြုလုပ်လျက်ရှိပြီး ဂျေးဂေယားဘုဒေသ အလုပ်သမားနှင့် လူ့အခွင့်အရေးအဖွဲ့များက နေ့စဉ် အလှည့်ကျ ဆန္ဒပြနေကြပါသည်။ ဒေဂူးမြို့၏ ဆန္ဒပြပွဲမှ တဆင့် နိုင်ငံအနှံ့ ပျံ့နှံ့သားလိမ့်မယ်လို့ မျှော်လင့်ပါသည်။ ကျွန်ုပ်တို့အားလုံး ချိတ်ဆက်မိလျက်ရှိပြီး နိုင်ငံ အနှံ့ထိ ဆန္ဒပြကြရအောင်။ မတိုက်လျှင် ပြောင်းလဲမည် မဟုတ်ပါ။ ရွှေ့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လုပ် သမားနှင့် လူ့အခွင့်အရေးများ တိုးတက်ကောင်းမွန်လာစေရန် အတူတကွ တိုက်ပွဲဝင်ကြပါစို့။

အတင်းအဓမ္မ ဖြိုခင်းဖမ်းဆီးခြင်းနှင့် ပြည်နှင်ဒဏ်ပေးခြင်းများကို ချက်ချင်းရပ်တန့်ပေး! ဗီစီမဲ့ ရွှေ့ပြောင်း အလုပ်သမားများကို တရားဝင်ပြုလုပ်ပေး! လတ်လပ်စွာ လုပ်ငန်းခွင် ပြောင်းရွှေ့ခွင့် မရှိသော အီးဒိုင်းစနစ် ဖျက်သိမ်းပေး! တို့ကိုပဲ!



รับให้คำปรึกษาปัญหาแรงงานด้านการค้าค่าจ้าง,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และอื่นๆฟรี 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โลหะร่วมกับ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นโยบายผิดๆที่มีแต่เพิ่ม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โดยไม่มี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

ฉ็องยองซ็อบ(นักกิจกรรม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ในนโยบาย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ของรัฐบาล ยุนซ็อกเยอลัน น มีแต่'ขยายจำนวน'แต่ 'ไม่มี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ด้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และ นายจ้างจะขยายการจัดห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มื่อต้องการเหมือนเป็นสิ่งของทั้งที่สภาพการทำงานที่ย่ำแย่ ซึ่ง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ถูกขูดรีดและเลือกปฏิบัติ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ปรุงให้ดีขึ้นแต่อย่างใด และ รัฐบาลได้กำหนดโควตา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แรงงานในระบอ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E-9ในปีนี้ ที่ 110,000 คนซึ่งสูงสุด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 และในช่วงครึ่งปีแรกจะนำ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 เข้ามาใหม่ประมาณ 27,000คน และนอก จากนี้ ยังกล่าวว่ายอุตสาหกรรมอุตสาหกรรมอยู่ต่อเรื่อยๆ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อีก14,000 คน ดังนั้นจึงพยายาม ดึงเข้าแรงงานวีซ่าE-9 หลายพันคนในสาขาการเชื่อม,การไฟฟ้า,การพนสี และ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จะก่อตั้งนโยบาย'พำนักระยะยาวเป็นกรณีพิเศษ' ในระบอ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หากทำงานครบตามเงื่อนไขที่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ำหนด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10ปี ขึ้นไป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 แต่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ทบจะไม่มีแผ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เกี่ยวกับสภาพการทำงานที่ย่ำแย่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ด้านมนุษยชนที่ต่ำ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ลย ทั้งนี้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กำลังรับฟังแต่เสียงเรียกร้องจากนายจ้างโดยไม่ฟังเสียงการเรียกร้อง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 แรงงานและ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ซึ่งใครๆก็รู้งานด้านการผลิต,การเกษตร,การประมง, การก่อสร้าง



ต่างชาติเลย หรือคิดแค่เพียงเพิ่ม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วให้ทำงานเหมือนเครื่องจักรหรือทาส ก็พอแล้วหรืออย่างไร!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ก็เป็นคนและเป็นแรงงานเหมือนกันและ เป็นสมาชิกของสังคมเดียวกันทำงานและ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ให้สามารถ ย้าย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ได้อย่างเสรีและรับรองที่พักที่สามารถใช้ชีวิตได้เฉกเช่นมนุษย์ ต้อง ได้รับประกั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เสียชีวิ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ต้องบังคับกฎหมาย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ค้า ค่าจ้างและรับค่าจ้าง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ต้องออกกฎหมายห้ามเลือกปฏิบัติ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การ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 วาจาและ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ต้องรับ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สิทธิแรงงา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ำงานทุกคน ต้องเปลี่ยนนโยบายที่ ไม่ถูกต้อง มาร่วมกันออกเสียงและดำเนินการร่วมกับกลุ่ม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กันเถอะ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ควร
แนะนำ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
ที่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ตามกฎหมาย
ให้ไม่ใช่โกดังหรือโรง
เรือน”



คิมอีซัน(นักกิจกรรม[สถานของหมู่บ้านโลก])
เมื่อปลายปี2020ทาง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ได้เคยประกาศ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ที่พบว่ากว่า70%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าศัยอยู่ใ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ทำจาก'แผงแซนวิช'หรือ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 และหลังจากเวลาผ่านไปกว่า2ปีแล้วก็ตามแต่ก็ยังไม่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ให้ดีขึ้นแต่อย่างใด กล่าวคือประมาณ70%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ยังคงทำงานโดยอาศัยอยู่' ในสถานที่ที่ไม่ใช่บ้าน'
สังคมเกาหลีในปัจจุบันตกอยู่ในสภาวะ'วิกฤตประชากร'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ประมาณ0.7%ซึ่งต่ำที่สุดในโลก นอกเหนือ จากกรุงโซลและเมืองใหญ่แล้วจำนวนประชากรที่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จกรรม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ค่อยๆลดลงและคนที่ไม่เมืองรุ่นใหม่ จะไม่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ารผลิต'ขนาดเล็ก',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ประมง',การก่อสร้าง'ฯลฯ และบริเวณที่มีสถาน ประกอบการดังกล่าวมีบ้านเรือนประชาชนอยู่อาศัยไม่มากนักและ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

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ก็มีไม่เพียงพอแต่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วนใหญ่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ได้ในเขตชานเมืองหรือชนบทที่ประชากรวัยหนุ่มสาวกำลังลดลงเท่านั้น และในระบอ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ะแนะน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ตั้งดังกล่าวให้เท่านั้น และหากพวกเขา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ที่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วีซ่าจะถูกปรับแล้วทุกท่านอาศัยอยู่ที่เขตโหนดและที่พักที่นายจ้างจัดหาให้เป็นบ้านประเภทใด?และบ้านดังกล่าวเป็นบ้านที่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น'ที่อยู่อาศัย'หรือเป็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เหมือนโกดังเช่น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หรือแผงแซนวิชใช่หรือไม่?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กล่าวว่าปีนี้ จะนำ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ภายใต้ระบอ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110,000คนมาใหม่ซึ่งเมื่อรวมกับ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แล้วจะ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ข้ามาในเกาหลีเพื่อทำงานจำนวนอย่างมาก กล่าวอีกนัยหนึ่งก็คือจะนำ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ไปให้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อยู่ในเขตพื้นที่และหมู่บ้านที่จนถึง ณ ปัจจุบันก็ยังไม่มีที่พักที่

เหมาะสมเลย ซึ่ง จะเป็นไปได้หรือไม่?ที่จู่ๆในเขตพื้นที่ดังกล่าวจะมีบ้านที่จดทะเบียน'ถูกต้อง ตามกฎหมาย' ในที่สุดนายจ้างก็จะให้แรงงานจำนวนมากพักอยู่ในห้องแคบๆที่มีอยู่เดิมอีกเช่นเคย และ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ผิดกฎหมายก็จะมีเพิ่มมากขึ้นซึ่งอาจทำให้ชีวิตและสุขภาพ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ย่ลงได้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เกาหลีซึ่งเป็นผู้รับผิดชอบจัดห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นายจ้างโดยการขยายขนาดการนำเข้าโดยพื้นที่เมื่อนายจ้างเอ่ยปากว่าต้องการ'กำลังแรงงาน' และพยายามที่จะปิดตาไม่มองความจริงที่ว่า กำลังแรงงานดังกล่าวก็คือ 'ค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องออกมาเรียกร้องร่วมกัน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ว่า'พวกเราเป็นคน!ไม่ใช่วัสดุการผลิตเครื่องจักรและเครื่องจักรการเกษตร! ต้องรับรองรองให้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มีบ้านที่สามารถอาศัยอยู่ได้เหมือนเป็นมนุษย์ไม่ใช่บ้านที่เป็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

ต่อต้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ละเนรเทศ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คิมยงเชอล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ปรึกษาสาขาภูมิภาคเข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ของหอการค้าเกาหลี)
ทา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26กุมภาพันธ์ว่าจะปราบปรา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โดยการร่วมกันปราบปรามของรัฐบาลครั้งนี้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2เดือนมีนาคมถึง30เมษายน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2เดือ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ครั้งนี้ มีแผนที่จะทำ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เกษตร,โรงงานและงานด้านบริการได้ประสูกับปัญหา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หนัก แต่หลังจากที่สถานการณ์คลี่คลายลงแล้วรัฐบาลได้ทำการขับไล่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ที่ทำงานหนักอย่างเงียบๆมาในช่วง

โควิด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พร้อมนำแรงงานใหม่เข้ามาจำนวนมากการใช้เมื่อยามจำเป็นและทิ้งไปเมื่อไ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ที่ป่าเถื่อนปัจจุบั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มีประมาณ400,000คน มุ่งมั่นที่จะทำให้ออกมาจาก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 เนื่องจากภายใต้ระบอ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ม่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 งานได้จึงหนีออกมาจาก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ลายเป็นผู้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โดยไม่ทำงานลือโอเล่ ในงานภาค เกษตร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ไม่มีเบี่ย เลียงแม้ว่างานที่งานเข้ากะหรือทำงานล่วงเวลาก็ตาม ดังนั้น จึงได้หนีออกมาจาก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มาเป็นผู้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เพราะเงินเดือนที่ได้รับไม่เพียงพอเมื่อเทียบกับงานโรงงาน แล้วการเป็นผู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เป็นความผิดส่วนบุคคล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หรือไม่? หรือผิดที่ระบบกฎหมายเกาหลีหรือไม่? ไม่สมกับการ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พัฒนาแล้วและไม่รู้สึกอายจริงๆหรือไม่กับ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ด้วยข้ออ้างที่ว่าไม่รักษากฎหมายที่ไม่ดี' ผิดกฎหมาย' โดยไม่แก้ไขกฎหมายอย่ากลัวว่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ไม่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หรือไม่? งานที่แรงงาน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ละ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กาหลีซึ่งเลที่จะทำคืองา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ซึ่งสังคมเกาหลีจะหยุดนิ่งหากไม่มี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พวกเรากำลังถูกเกลียดชังเรื่องงานกับใคร?ผู้ที่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ที่แย่ที่สุดคือ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ซึ่งวันหนึ่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ก็ต้องได้เดินทางกลับ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ตนเองและต้องได้กลับไปหาพ่อแม่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เพื่อนอันเป็นที่รักของพวกเขา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อย่ากล่าวหา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ายแรงเพียงเพราะพำนัก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ระยะ และหยุด!การต่อต้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โดย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ด้วยการจับบังคับส่งกลับ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อีก
ในเมืองแดกูตั้งแต่วันที่17กุมภาพันธ์ทวันศุกร์เวลา11นาฬิกาจะมีการชุมนุมต่อต้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ที่หน้า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เขตแดกูซึ่งจะมีองค์กรสิทธิแรงงานในเมืองแดกูกล่าวหา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ายแรงเพียงเพราะพำนัก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ระยะ และหยุด!การต่อต้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โดย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ด้วยการจับบังคับส่งกลับ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อีก
ในเมืองแดกูตั้งแต่วันที่17กุมภาพันธ์ทวันศุกร์เวลา11นาฬิกาจะมีการชุมนุมต่อต้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ที่หน้า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เขตแดกูซึ่งจะมีองค์กรสิทธิแรงงานในเมืองแดกูกล่าวหา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ายแรงเพียงเพราะพำนัก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ระยะ และหยุด!การต่อต้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โดย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ด้วยการจับบังคับส่งกลับ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อีก
ยติ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ละเนรเทศโดยทันที! ออกกฎหมายที่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ยกเลิกระบอ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ขาด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ย้ายงาน!



बिषय: तलब नपाएको, औधोगिक दुर्घटना इत्यादिको श्रम परामर्श धातु युनियन(Korean Metal Workers' Union) र ईजुमिन ग्वा हाम्के एकजुट छन्।

अधिकारको ग्यारन्टी नभई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संख्या मात्र बढाउने गलत नीतिहरू परिवर्तन गर्नुपर्छ!

जड यड सब (प्रवासी मजदुर युनियन कार्यकर्ता) युन सक यल सरकार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नीतिमा 'संख्या विस्तार' मात्र छ तर 'अधिकार ग्यारेन्टी' छैन। श्रम कार्यस्थल र मालिकहरूलाई आवश्यक पर्ने सामान सरह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आपूर्ति विस्तार गर्नेछन्, तर श्रम शोषण र भेदभावबाट पीडित अवस्थाको सुधार गरिरहेको छैन। सरकारले यो वर्ष 1 लाख 10 हजार E-9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मजदुरहरूको प्रवेश कोटा तोकेको छ, जुन अहिलेसम्मकै उच्च हो। मौसमी मजदुरहरू मात्र पहिलो आधा वर्षमा लगभग 27,000 नयाँ ल्याउनेछन्। साथै, जहाज निर्माण उद्योगमा 14,000 जनाको कमी छ भनी वेल्डिङ, बिजुली र पेन्टिङ क्षेत्रमा हजारौं E-9 भिसाका मजदुरहरू ल्याउन प्रयास गरिरहेको छ। अर्कोतर्फ,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मा 'दीर्घकालिन बसाइ विशेष' नीति बनाएर एकै कार्यस्थलमा काम गरी निश्चित सर्तहरू पुरा गरेर काम गर्‍यो भने देश फिर्ता नभईकन 10 वर्षभन्दा बढी काम गर्न सकिने व्यवस्था बनाउने बताइएको छ। तर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कमजोर श्रम अवस्था र मानव अधिकारको न्यून स्तरमा सुधार गर्ने कुनै योजनाहरू छैनन्। किनभने आप्रवासी कामदारको आवाज, श्रम अधिकार र मानव अधिकारको ग्यारेन्टी गर्ने मागलाई सरकारले सुन्दैन तर रोजगारदाताको माग मात्र सुन्ने गर्छ। तर कोरियाको उत्पादन क्षेत्र, कृषि क्षेत्र, मत्स्यपालन क्षेत्र, निर्माण र सेवा उद्योगहरू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विना राम्ररी चलन सक्दैनन् भन्ने कुरा सबैलाई थाहा छ। स्वदेशी श्रमशक्ति घट्दै गएको छ र 3D(फोहोर,



हुन्छ भनी सोचेको हो 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 पनि समान मानिस र मजदुर हो। उनिहरू पनि कोरियाली समाजमा काम गर्ने र बस्ने एउटै समाजका सदस्य हुन्।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को स्वतन्त्रताको ग्यारेन्टी हुनुपर्छ। मानविय रुपम बस्न मिल्ने आवाशको ग्यारेन्टी गर्न आवश्यक छ।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मा परेर मृत्यु नहोस् भनेर श्रम सुरक्षाको प्रत्याभूति हुनुपर्छ। तलब भुक्तानी ढिलाइ नगरी सही रूपमा प्राप्त गर्नका लागि कानूनको उचित कार्यान्वयन हुनुपर्छ। मौखिक दुर्व्यवहार, कुटपिट र भेदभाव रोक्नको लागि भेदभाव निषेध कानून बनाइनुपर्छ। काम गर्ने सम्पूर्ण आप्रवासीहरूको मानव अधिकार र श्रम अधिकारको प्रत्याभूति हुनुपर्छ। गलत नीतिहरू परिवर्तन गर्नुपर्छ। प्रवासी मजदुर संस्था र मजदुर युनियनसँग मिलेर आवाज उठाऔं र कार्य गरौं।

खतरनाक, र कडा परिश्रम) श्रमहरू नगर्ने हुनाले कोरियाली अर्थतन्त्रलाई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आवश्यकता बढेको छ।

विशेषगरी कोरोनाको समयमा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काम गर्ने उद्योगमा जनशक्ति अभाव भएको भनी रोजगारदाताहरू विपतमा परेका थिए। कोभिड-19को प्रकोपमा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महत्त्वको कती छ भन्ने कुराको पुष्टि भएको छ। तर किन सरकारले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हकहितमा सुधार पनि गर्दैन ग्यारेन्टी पनि दिदैन!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संख्या मात्र बढाउने, मेसिन वा दास जस्तै काम मात्रै गरे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ले गोदाम होईन, टहरा होईन, वैधानिक रुपको आवाश उपलब्ध गर्ने कार्यस्थलको परिचय देउ!"



किम ई छान (चिकुईन आई जडरिउजाङ कार्यकर्ता) 2020 सालको अन्त्यमा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ले एउटा अनुसन्धानको नतिजा घोषणामा भनिएको थियो कि '70% भन्दा बढी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स्यान्डविच प्यानल' वा 'कन्टेनर'ले बनेका 'अस्थायी भवन' मा बस्छन्। र त्यसपछि दुई वर्ष भन्दा बढी बितिसकेको छ तर अझै पनि त्यो कसरी सुधार भयो भन्ने कुनै घोषणा छैन। अर्को शब्दमा भन्नुपर्दा, अझै पनि लगभग 70%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घर होईन' ठाउँमा बसिरहेका र काम गरिरहेका छन्। कोरियाली समाज अहिले 'जनसङ्ख्याको भिर'को अवस्थामा छ। प्रजनन दर 0.7% छ, जुन विश्वमा सबैभन्दा कम हो। सउल र महानगरीय क्षेत्रहरू बाहेक आर्थिक गतिविधिहरूमा संलग्न जनसंख्या बिस्तारै घट्दै गएको छ र युवाहरू अब 'साना कम्पनी', 'कृषि र पशुपालन उद्योग' र 'निर्माण उद्योग' जस्ता कामहरूमा जाँदैन्। यस्ता कम्पनीहरू रहेका क्षेत्रमा मानिसहरू बस्नका लागि घरहरू पनि धेरै छैनन् र

बसाईका लागि पर्याप्त सुविधाहरू पनि छैनन्। तर अधिकांश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युवा जनसंख्या घट्दै गएको सहरको बाहिरी भाग वा ग्रामीण क्षेत्रहरूमा मात्र रोजगारी पाउन सक्छन्।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मजदुरहरूलाई त्यस्ता ठाउँहरूमा मात्र काम गर्न परिचय गराइन्छ र यदि उनीहरूले अनधिकृत कार्यस्थलमा काम गर्मा उनीहरूको भिसा खारज गरिन्छ। तपाईं कहाँ बस्नुहुन्छ र तपाईंको रोजगारदाताले कस्तो प्रकारको आवास उपलब्ध गराएको छ? के त्यो घर 'आवासीय सुविधा' को रूपमा दर्ता गरिएको छ वा कन्टेनर, स्यान्डविच प्यानल, गोदाम जस्तो अस्थायी भवन हो?

कोरियाली सरकारले यो वर्ष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अन्तर्गत 1 लाख 10 हजार नयाँ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भित्र्याउने योजना बनाएको छ। मौसमी मजदुरहरू समेत गरी अझ धेरै मजदुरहरू कोरिया आएर काम गर्नेछन्। अर्को शब्दमा भन्नुपर्दा, उपयुक्त

बासस्थान नभएका क्षेत्र र गाउँहरूमा थप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ल्याएर काम गराउनेछन्। त्यो क्षेत्रमा अचानक 'वैधानिक', 'दर्ता भएको' घरहरू बनिएला?

अन्ततः रोजगारदाताहरूले पहिलेकै साना कोठाहरूमा अझ धेरै मजदुरहरूलाई बसाउने छन र अवैध अस्थायी भवनहरू बढाउने छन्।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जीवन र स्वास्थ्य अझ खराब हुन सक्छन्।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व्यवस्थित गर्न जिम्मेवार भएको कोरियाली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ले 'श्रम बल' आवश्यक परका रोजगारदाताहरूको अनुरोधलाई तुरुन्तै प्रतिक्रिया दिने र परिचयको स्केल धेरै बढाएको छ, तर 'श्रम बल' भनेको 'मानिस', 'मजदुर' हो भन्ने तथ्य बाह्र आँखा बन्द आँखा बन्द गराउन छैन।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हामी मेसिन, कृषि मेसिनरी वा उत्पादन सामग्री होइनौं! मानिस बस्न नमिल्ने अस्थायी भवन होइन, मानविय रुपमा बस्न मिल्ने घरमा बसेर काम गर्न पाउने ग्यारन्टी देउ!" भनी माग गर्नुपर्छ।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धडपकड विरोध गर्छौं।



किम योङ छल (धातु मजदुर युनियन देजु शाखा सङ्स औद्योगिक क्षेत्र परामर्श मेनेजर) फेब्रुअरी 26 मा न्याय मन्त्रालयले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माथि धडपकड गर्ने घोषणा गरेको छ। यसपटक संयुक्त सरकारको धडपकडको रूपमा मार्च 2 देखि अप्रिल 30सम्म दुई महिनाको अवधि हो। विशेषगरी यसपटक कार्यस्थलहरूमा पनि धडपकड गर्ने भनिएको छ। कोरोनाको 3 वर्ष अवधिमा विदेशी मजदुरको कमी हुँदा ग्रामीण क्षेत्र, कलकारखाना, सेवा उद्योगमा निकै कठिनाई भएको थियो। तर, अहिले कोरोना समाप्त भएपछि ठूलो संख्यामा नयाँ मजदुरहरू भित्र्याउँदै छन र कोरोनाको समयमा चुपचाप मिहिनेत गर्दै आएका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ई धपाउन

लागेका छन्। आवश्यक पर्दा प्रयोग गर्ने र नचाहिने बेला फ्याँकिदिने कोरियाली सरकार अशुभ छ। हाल,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4 लाख छन्। यिनीहरू किन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हुन्, यसबारे बुझौं।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अन्तर्गत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असम्भव भएकोले यदि केहि हद नलागेर तपाईंले कार्यस्थल छोड्नु भयो भने तपाईंको दर्ता हुँदैन। कृषि र मत्स्यपालनमा रात्री काम वा ओभरटाइम काम गरेपनी भत्ता छैन। त्यसैले यदि तपाईं कार्यस्थलबाट बाहिर निस्कनु भयो भने कम्पनीको तुलनामा तलब आधा मात्रै हुन्छ र तपाईं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ब्यक्ती हुनेछ। के यो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को व्यक्तिगत गल्ती हो?

कि कोरियाली कानुनी प्रणाली गलत हो? विकसित रास्ट्रले खराब कानूनहरू ठीक नगर्ने र खराब कानूनहरूको पालना गरेन भनेर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मजदुरहरूलाई "गैरकानुनी" भन्दै उनीहरूलाई कारबाही गर्नु बिकसित रास्ट्रले गर्ने काम होईन। अलिकति पनि लाज लाग्दैन?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मजदुरहरूको आवश्यकता छैन? भनी सोध्न चाहन्छु। कोरियाली मजदुरहरू र दर्ता(भिसा) 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गर्न नचाहने कामहरू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गर्छन्।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छैन भने कोरियाली समाज रोकिनेछ। कामको लागि हामी कोसँग लडिरहेका छौं? सबैभन्दा दुख र गारहो ठाउँमा काम गर्ने जिम्मेवारी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ई छ।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पनि कुनैदिन आफ्नो देश फर्कन्छन्। आफ्ना प्रिय परिवारको काखमा र साथीहरू भेट्न फर्कने छन। त्यसैले बसाइको अवधी नाघ्यो भन्दाइमा उनिहरूलाई ठूलो अपराधीको रूपमा व्यवहार नगर, हिंसात्मक र मानव अधिकाररहित तरिकाले समात्ने र जबरजस्ती पठाउने धडपकड अब रोक! फेब्रुअरी 17 देखि हरेक शुक्रबार बिहान 11:00 बजे देगु अध्यागमन कार्यालय अगाडि रयाली गर्दै आएको छ र देगु ग्यडबुक प्रान्तका श्रमिक तथा मानव अधिकार संस्थाहरूले हरेक दिन पालैपालो विरोध प्रदर्शन गरिरहेका छन्। देगुमा भएको यो विरोध देशभर फैलिनेछ भनी आशा गर्छौं। हामी सबै जोडिएका छौं र देशभर मिलेर विरोध गरौं। यदि लड्नुहुन्न भने परिवर्तन हुँदैन।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श्रम र मानव अधिकार सुधारका लागि मिलेर लडौं। जबरजस्ती धडपकड तुरुन्त बन्द गर! दर्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लाई वैधानिक गर!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स्वतन्त्रता नभएको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खारेज गर! थुजेड (संघर्ष)!



අන්තර්ගතය: හිඟ වැටුප්, කාර්මික අභ්‍යන්තර ආදිය පිළිබඳ නොමිලේ කම්කරු උපදේශනය.

ලෝහ වුර්තිය සමිති සංගමය සංස්කෘතික කම්කරුවන් සමගය

අයිතින් සහතික නොකර සංක්‍රමණික ශ්‍රමිකයින් සංඛ්‍යාව පමණක් වැඩ කරන වැරදි ප්‍රතිපත්තිය, එය වෙනස් කළ යුතුයි!

ජොං යොං සොප් (සංක්‍රමණ සංගමයේ ක්‍රියාකාරී)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පිළිබඳ යුන් සොක්-යෙයෝල් ආන්ඩුවේ ප්‍රතිපත්තියට ඇත්තේ 'සංඛ්‍යා ප්‍රසාරණය' පමණක් වන අතර 'අයිතිවාසිකම් සහතිකයක්' නොමැත. ඔවුන් පවසන්නේ කාර්මික ස්ථාන සහ භාණ්ඩ වැනි ලොක්කන්ට අවශ්‍ය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සැපයුම පුළුල් කරන නමුත් ශ්‍රම සුරාකූමෙන් හා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න් පෙළෙන දුප්පත් තත්වයන් වැඩිදියුණු නොවන බවයි. ආන්ඩුව මේ වසරේ E-9 රැකියා බලපත්‍ර සේවකයින් 110,000 ක ප්‍රවේශ කෝටාව සකස් කර ඇති අතර එය මෙතෙක් පැවති ඉහළම අගයයි. සෘතුමය සේවකයින් පළමු භාගයේදී පමණක් නව සේවකයින් 27,000 ක් පමණ ගෙන එයි. මීට අමතරව, නැව් තැනීමේ කර්මාන්තයට පුද්ගලයින් 14,000 ක හිඟයක් පවතින අතර, එය වෙල්ඩින්, විදුලිය සහ පින්තාරු කිරීමේ ක්ෂේත්‍රවල E-7 විසා සේවකයින් දහස් ගණනක් ගෙන්වා ගැනීමට උත්සාහ කරයි. අනෙක් අතට යම් කොන්දේසි සපුරාලීමෙන් රැකියා බලපත්‍ර ක්‍රමයේ "දිගුකාලීන රැකියා සිටීමේ විශේෂත්වයක්" ඇතිකරගෙන සේවා ස්ථානයක සේවය කරමින් වසර 10කට වැඩි කාලයක් රට හැර නොගොස් වැඩ කළ හැකි ක්‍රමවේදයක් නිර්මාණය කරන බවද පැවසේ.

කෙසේ වෙතත්, සංක්‍රමණික ශ්‍රමිකයන්ගේ දුර්වල සේවා තත්ත්වයන් සහ අඩු මානව හිමිකම් වැඩිදියුණු කිරීමට බොහෝ සැලසුම් නොමැත. මක්නිසාද යත් විග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හඬට සහ කම්කරු අයිතින් හා මානව හිමිකම් සහතික කරන ලෙස කරන ඉල්ලීම්වලට රජය තත් නොදී භාමිපුත්‍රයන්ගේ ඉල්ලීම්වලට පමණක් සවන් දෙන බැවිනි. කෙසේ වෙත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නොමැතිව කොරියාවේ නිෂ්පාදන, කෘෂිකර්මාන්ත,



කරන්නේ හෝ සහතික නොකරන්නේ මන්ද? සංක්‍රමණික ශ්‍රමිකයින් සංඛ්‍යාව වැඩි කර යන්න හෝ වහලුන් මෙන් වැඩ කිරීම පමණක් අවශ්‍ය යැයි ඔබ සිතනවාද?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යනු එකම මිනිසුන් සහ කම්කරුවන් ය. ඔවුන් කොරියානු සමාජයේ වැඩ කරන සහ ජීවත් වන එකම සමාජයේ සාමාජිකයන් වේ. සේවා ස්ථානවල ගමන් කිරීමේ නිදහස සහතික කළ යුතුය. මිනිස්සුන්ට මිනිස්සු වශයෙන් ජීවත් වෙන්න පුළුවන් නේවාසිකාගාරයක් සහතික කරන්න ඔහු. කාර්මික අභ්‍යන්තරවලින් කම්කරුවන් මිය නොයන ලෙස ශ්‍රම සුරක්ෂිතතාව සහතික කළ යුතුය. ප්‍රමාදයකින් තොරව නිසි පරිදි වැටුප් ලැබීමට නීතිය නිසි ලෙස ක්‍රියාත්මක විය යුතුය. වාචික අපයෝජනය, පහරදීම් සහ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 වැළැක්වීම සඳහා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 වැළැක්වීමේ නීතියක් පැනවිය යුතුය. සියලුම වැඩ කරන සංක්‍රමණිකයන්ගේ මානව හිමිකම් සහ කම්කරු අයිතිවාසිකම් සහතික කළ යුතුය. වැරදි ප්‍රතිපත්ති වෙනස් කළ යුතුය. සංක්‍රමණික සේවක සංවිධාන හා කම්කරු සංගම් සමඟ එක්ව කටයුතු කරමු.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 ගබඩා නොව, ගොවිපළවල් නොව නීත්‍යානුකූල නිවාස පහසුකම් සපයන සේවා ස්ථානයක් හඳුන්වා දෙන්න!"

කිම් ඊ චන් (පාට්‍රිව්ස් නැවතුම්පොල) ක්‍රියාකාරී) 2020 අවසානයේ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 විසින් පරීක්ෂණයක ප්‍රතිඵල ප්‍රකාශයට පත් කළේ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න් 70%කට වඩා වැඩි ප්‍රමාණයක් ජීවත් වන්නේ 'පැන්ඩ්ට්ට් පැනල්' හෝ 'කුන්ටේනර්' වලින් සාදන ලද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 වල බවයි. එතැන් සිට වසර දෙකකට වැඩි කාලයක් ගත වී ඇත, නමුත් එය වැඩිදියුණු වී ඇති ආකාරය පිළිබඳව තවමත් වචනයක් නොමැත. වෙනත් වචන වලින් කිවහො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න් 70% ක් පමණ තවමත් නිවාස නොමැති ස්ථානයක ජීවත් වෙමින් වැඩ කරති. කොරියානු සමාජයේ මේ වන විට "ජනගහන කඳ බැටීම" ලෙස හැඳින්වේ. සාඵලයක අනුපාතය 0.7% වන අතර එය ලෝකයේ අඩුම අගයකි. සොල් සහ මෙට්‍රොපොලිටන් ප්‍රදේශ වැනි අගනගර ප්‍රදේශ හැරුණු විට, ආර්ථික ක්‍රියාකාරකම්වල නියැලෙන පුද්ගලයින් සංඛ්‍යාව ක්‍රමයෙන් අඩුවෙමින් පවතින අතර, නිරන්තර පහතරා තවදුරටත් කුඩා ව්‍යාපාර, කෘෂිකර්මාන්ත හා පශු සම්පත් කරගන්න සහ එවැනි රැකියා වල නියුක්ත නොවේ. මෙම සමාගම් පිහිටා

ඇති ප්‍රදේශවල මිනිසුන්ට ජීවත් වීමට නිවාස නොමැති අතර ජීවත් වීමට ප්‍රමාණවත් පහසුකම්ද නොමැත. කෙසේ වෙතත්, බොහෝ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ට රැකියා සොයා ගත හැකි තරුණ ජනගහනය අඩුවෙමින් පවතින නගර හෝ ග්‍රාමීය ප්‍රදේශවල මායිම්වල පමණි. රැකියා බලපත්‍ර ක්‍රමයේ සේවකයින් එවැනි ස්ථානවල රැකියා සඳහා පමණක් හඳුන්වා දෙන ලබන අතර, ඔවුන් ඇතිවසර, සේවා ස්ථානයක සේවය කරන්නේ නම්, ඔවුන්ගේ වසා බලපත්‍රය අවලංගු වේ. සහ සේවායෝජකයා විසින් සපයනු ලබන නවාතැන් මොනවාද? එම නිවස 'නේවාසික පහසුකම්' ලෙස ලියාපදිංචි කර තිබේද, නැතහොත් එය බහාලුමක්, සැඩ්ට්ට් පැනලයක් හෝ ගබඩාවක් වැනි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වලදීද? මේ වසරේ රැකියා බලපත්‍ර ක්‍රමය යටතේ නව සංක්‍රමණික ශ්‍රමිකයන් 110,000 ක් හඳුන්වා දීමට කොරියානු රජය සැලසුම් කරයි. සෘතුමය සේවකයින් එකාබද්ධ වී විට බොහෝ කම්කරුවන් කොරියාවට පැමිණේ. වෙනත් වචන වලින් කිවහොත්, සුදුසු නවාතැන් පහසුකම් නොමැති ප්‍රදේශවල සහ ගම්වල රැකියා ස්ථාන වෙත වැඩ වැඩියෙන් සංක්‍රමණික

ශ්‍රමිකයන් ගෙනැවිත් ඔවුන් වැඩ කිරීමට සලස්වනු ඇත. එම ප්‍රදේශයේ හදිසියේම 'නිත්‍යානුකූල', 'ලියාපදිංචි' නිවසක් නිවස හැකිද? අවසානයේදී දැනට පවතින කුඩා කාමරවල ජීවත් වීමට සහ නීති විරෝධී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 වැඩි කිරීමට භාමිපුත්‍රයන් විසින් තවත් සේවකයින්ට බල කිරනු ඇත.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ජීවන සහ සෞඛ්‍යය රටින් වඩා නරක විය හැකිය.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සංවිධානය කිරීමේ වගකීම දරන කොරියානු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 'ශ්‍රම බලකාය' සඳහා සේවා යෝජකයන්ගේ ඉල්ලීම්වලට ඉක්මනින් ප්‍රතිචාර දැක්වූ අතර හඳුන්වාදීමේ පරිමාණය වර්ධනය ලෙස වැඩි කළ නමුත්, ශ්‍රම බලකාය යනු 'පහතරා' සහ 'කම්කරුවන්' යන කාරුණයේදී ඔවුන්ගේ අය වසා ගැනීමට ඔවුන් දැඩි උත්සාහයක් දරයි.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දිගටම පවසන්නේ, "අපි යනු, කෘෂිකර්මික යනු නොකරන අපි නිෂ්පාදන ද්‍රව්‍ය නොවේ! මිනිසෙකි! මිනිසුන්ට ජීවත් විය නොහැකි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වල නොව මිනිසුන්ට මිනිසෙකු මෙන් ජීවත් විය හැකි නිවසක මිනිසුන්ට ජීවත් විය හැකි සහ වැඩ කළ හැකි රැකියාවක් සහතික කරමු!

විසා නොමැ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මර්දනය කර පිටුවහල් කිරීමට අපි විරුද්ධ වෙමු.



කිම් යොං වොල් (ලෝහ සේවක සංගමය තේගු ශාඛා සොන්සෝ කාර්මික සංකීර්ණ ප්‍රාදේශීය ශාඛාව, උපදේශන අධ්‍යක්ෂ) ලේඛනගත නොකර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ට එරෙහිව දැඩි පියවර ගන්නා බව අධිකරණ අමාත්‍යාංශය පෙබරවාරි 26 දා නිවේදනය කළේය. මෙවර එය ඒකාබද්ධ රජයේ මර්දනයක් ලෙස මාර්තු 2 වැනිදා සිට අප්‍රේල් 30 වැනිදා දක්වා මාස දෙකක කාලයකි. විශේෂයෙන්ම මෙවර වැඩබිම්වලටද දැඩි ක්‍රියාමාර්ග ගැනීම ප්‍රතිපත්තියකි. කොරෝනා කාලපරිච්ඡේදය තුළ වසර 3 ක් නිසි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හිඟයක් පැවති බැවින් ග්‍රාමීය ප්‍රදේශවල, කර්මාන්තශාලා සහ සේවා කර්මාන්තවල දැඩි දුෂ්කරතා ඇති විය. කෙසේ වෙතත්, දැන් කොරෝනා අවසන් වී ඇති බැවින්, නව කම්කරුවන් විශාල ප්‍රමාණයක් හඳුන්වා දී ඇති අතර, කොරෝනා

යුගයේ වෙහෙස මහන්සි වී වැඩ කළ ලියාපදිංචි නොකළ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පහත දැමීම සිටී. ඒවා අවශ්‍ය විට භාවිත කරනු, අනවශ්‍ය විට ඉවත දමන කොරියානු රජයේ මිලේට්පත්වයයි. දැනට, දළ වශයෙන් 400,000 ලේඛනගත නොවන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සිටී. ඔවුන් ලියාපදිංචි නොකළ මන්දැයි බලමු. රැකියා බලපත්‍ර ක්‍රමය යටතේ රැකියා ස්ථාන වෙතත් කිරීමට නොහැකි නිසා අතිවැඩියෙන් රැකියා ස්ථානයෙන් පිටව ගියහොත් ඔබ ලියාපදිංචි වී නොමැත. ගොවි සහ ධීවර ගම්මානවල රාත්‍රී හෝ අතිකාල සඳහා පවා දීමනාවක් නැත. ඉතින්, ඔබ කර්මාන්ත ශාලාවට සාපේක්ෂව වැටුපෙන් අඩක් පමණක් සමඟ රැකියා ස්ථානයෙන් පිටව ගියහොත්, ඔබ ලියාපදිංචි වී නොමැත. විසා නොමැතිවීම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ගේ පුද්ගලික වරදක්ද? කොරියානු නීති පද්ධතියේ වරදක්ද? තරක නීති වෙනස් නොකර, තරක නීති රැකීම නොකළ නිසා ඔවුන් "නීති විරෝධී" ලෙස හඳුන්වමින්,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මර්දනය කිරීම සංවර්ධිත රටවල් මෙන් නොවේ. ඇත්තටම ලැජ්ජා තැද්ද?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අවශ්‍ය නොවේද? මට අනන්තට අවශ්‍යයි. කොරියානු කම්කරුවන් කිරීමට මැලි වන, සහ ලියාපදිංචි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කිරීමට මැලි වන, රැකියා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රැකියා වේ. ලේඛනගත නොවූ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නොමැතිව කොරියානු සමාජය තනර වනු ඇත. අපි රස්සාවකට රණ්ඩු වෙන්නේ කා එක්කද? දුප්පත්ම ස්ථානවල වැඩ කිරීම ලේඛනගත නොකළ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වගකීමයි. ලියාපදිංචි නොකළ සංක්‍රමණික ශ්‍රමිකයන් ද කවදා හෝ තම රටවලට ආපසු පැමිණේ, මම මගේ ආදර්ශය පවුලේ අය සහ මිතුරන්ගේ දැන් වෙත නැවත පැමිණෙන්නෙමි. එබැවින් ඔවුන් රැකියා කාලය පසු කළ පමණින් ඔවුන් මහා අපරාධකරුවන් ලෙස නොසලකන්න. අල්ලා බලන්න යවන ප්‍රවණ්ඩ සහ මානව හිමිකම් විරෝධී මර්දනය නවත්වනු!

තේගු හි, පෙබරවාරි 17 වන දින සිට, සෑම සිකුරාදා දිනකම 11 ට, තේගු ආගමන කාර්යාලය ඉදිරිපිට මර්දනයට එරෙහි රැලියක් පැවැත්වෙන අතර, තේගු සහ උතුරු ගොංසන් පළාතේ කම්කරු සහ මානව හිමිකම් කණ්ඩායම් සෑම දිනකම මාරුවෙන් මාරුවට විරෝධතා පවත්වයි. තේගු හි විරෝධතාව රට පුරා පැතිර යනු ඇතැයි මම බලාපොරොත්තු වෙමි. අපි සැවොම සම්බන්ධයි, එක්ව රට පුරා උද්ඝෝෂණය කරමු. ඔබ සටන් නොකරන්නේ නම්, ඔබ වෙනස් නොවනු ඇත. සංක්‍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ශ්‍රමය සහ මානව හිමිකම් වැඩිදියුණු කිරීමට එක්ව සටන් කරමු. බලහත්කාර මර්දන සහ පිටුවහල් කිරීම් වහාම නවත්වන්න!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නීතිගත කරන්න! රැකියා ස්ථානයට යාමට නිදහස නැති රැකියා බලපත්‍ර ක්‍රමය අහෝසි කරනු! සටන් කරන්න!



Цалин хөлсөө авч чадахгүй бай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зэрэг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тэй холбоотой зөвөлгөөг үнэ төлбөргүй өгөх ба Металь эдлэл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 нь цагаач ажилчидтай хамтдаа байх болно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эрх нь хамгаалагдаж байх хангалттай орчин нөцлийн бүрдүүлэх тал дээр анхаарахын оронд зөвхөн тэдний т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тал дээр анхаарч буй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одлогыг өөрчлөх цаг нэгэнт болжээ.

Жон Ён соб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ийн дэмжигч гишүүн) Юүн Сог Юүл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цагаач ажилчдад чиглэсэн бодлогын агууламж нь ажилчдын т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тал дээр түлхүү анхаарч буй хэдий ч нөгөө талаар тэдний эрх, эрхзүйн орчин нөхцлийг сайжруулах тухай огт дурдаагүй нь харамсалтай. Аж үйлдвэрийн бүс, ажил олгогч байгуулгуудын шаардлага дээр үндэслэн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ийг яг л бараа тээвэр оруулж ирэхтэй адилтган үзэж, тэднийг олноор нь ирүүлэ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ч асуудлын гол цөм болох ажилчдын өмнө тулгарч буй нийгмийн олон асуудал, гадуурхалт, амьдарлын таагүй орчин нөхцөл зэрэг асуудлуудыг сайжруулах тал дээр огт анхаарч үзэхгүй байгаа нь үнэн билээ. Засгийн газар энэ жил шинээр ирэх Е-9 буюу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ажилчдыг тоог өмнөх жилүүдээс харьцангуй их буюу 110 мянга байлга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Мөн энэ оны эхний хагас жилд гэхэд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ажилчдын тоог 27 мянгад хүргэ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ба цаашлаад усан онгоц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лын улмаас 14 мянган иргэдийг гагнуур, цахилгаан, будаг сэргээн засварлалтын салбарт ажиллуулахаас гадна, Е-7 ангилалын визтэй иргэдийг хэдэн мянгаар нь татан ирүүлэхээр тогтоод байгаа билээ. Мөн түүнчлэн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тогтолцоонд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оршин суух тусгай эрх” -г шинээр бий болгон ажлын байрандаа тогтвортой ажилласан ажилчдад тодорхой шаардлагуудыг ханг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нутаг буцаахгүйгээр 10-с дээш жил ажиллах нөхцлөөр хангах тухай шийдвэрүүдийг тус тус гаргаад байгаа билээ. Асуудлыг нөгөө талаас нь авч үзвэл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аагүй нөхцөл байдал, тэд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йжруулах тухай дорвитой заавар төлөвлөгөөг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зүгээс гаргаагүй байна. Энэ нь засгийн газар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лөх эрх, хүний үндсэн эрхээ хамгаалуулах тухай тэдний зүгээс гаргаж буй дуу хоолойг үл тоомсорлон, зөвхөн ажил олгогч эздийн шаардлагыг хүлээн авч буйтай холбоотой юм.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оролцоогүйгээр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аж



сайжруулах тал нүд балай, чих дүлий байна вэ? Зөвхөн өнгөц тоон үзүүлэлт дээр анхаарч,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техник төхөөрөмж эсвэл ажлын боол мэт үзэж, тэднийг зөвхөн олноор нь татан ирүүлэн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ж л байвал болно гэж үзэж буйтай холбоотой хэрэг үү?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ч бидний адил энгийн нэгэн иргэн хүн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д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манай нийгмийг бүтээлцэж буй бүтээгч хэсгийн нэг билээ. Иймд тэдний ажлын байраа солих эрх, хүн амьдарч болох тохь тухтай байранд амьдрах эрхийг юун түрүүнд хамгаалах нь чухал байна. Мөн үйлдвэрийн ослоос тэдний амь нас, эрүүл мэндийг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ал дээр анхаарч, хамгаалах нэн чухал шаардлага байсаар байна. Ажилчин ажлын хөлсөө авч чадаагүй тохиолдолд тэдний хохирлыг бүрэн барагдуулах хуулийн заалт тухайн цаг хугацаа орон зайд зүй ёсны дагуу хэрэгжиж байх ёстой. Цаашлаад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хэл амаар доромжлох, хүчирхийлэх, гадуурхах зэргийн эсрэг хуулийн төслийг бат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Хөдөлмөр эрхэлж буй цагаач иргэн нэг бүрийн хүний үндсэн эрх, ажил хөдөлмөр хийх эрх нь хамгаалагдаж байх ёстой. Бид нүдээ олоогүй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өөрчлөх ёстой. Цагаач иргэд,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гч байгуулгууд,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үүд бүгд хамтын хүчээ нэгтгэн дуу нэгтэй хөдөлцгөөе.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агуулах байр эсвэл хүлэмж биш, хүн амьдрах боломжтой байраар хангах чадвар бүхий ажлын байруудыг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Ким И Чань (/Дэлхийн иргэн таны автобусны зогсоол/ дэмжигч гишүүн) 2020 оны сүүлээр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наас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гаар “Нийт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70-с дээш хувь нь сэндивичин хавтан, контейнер зэрэг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анд амьдарч байна” гэсэн судалгааны дүнг нь танилцуулсан. Гэтэл үүнээс хойш 2 жил гарны хугацаа өнгөрсөн ч байдлыг хэрхэн сайжруулсан талаар ямар нэг онцлох үр дүнг дахин танилцуулсангүй. Өөрөөр хэлбэл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70 -с дээш хувь нь урьдын адил өнөөх л “Гэр биш агуулах байр”-д амьдрангаа ажилласаар байна гэсэн үг юм.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 өнөөдрийн байдлаар “Хүн амын өсөлтийн хувьд туйлдаг” -н байдалтай байгаа билээ. Шинээр төрж буй хүүхдийн тоо 0.7% буюу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 дундаас хамгийн доогуурт орж байна. Сөүл, төвийн бүсийн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г эс тооцво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эрчимтэ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иргэдийн тоо улам буурсаар буй бөгөөд, залуучуудын хувьд “жигжиг үйлдвэр”, “Газар тариалан, хөдөө аж ахуй”,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 зэрэг салбаруудад ажиллахаас татгалзаж байна. Дээр дурдсан эдгээр салбарын үйлдвэр, аж ахуй нэгжүүд төвлөрөн байрласан газар нутгуудад амины оршин суух байрнаас эхлээд өргөн хэрэгцээний үйлчилгээний газрууд ч

хомсдмол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Нөгөөтэйгүүр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дийлэнх хувь нь залуу, ажиллах хүч нь буурсан жигжиг хот тосгоны захын хэсэгт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загас агнуур,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ажлын байруудад оногдож байна.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ажилчдад дээр дурдсан эдгээр салбарын ажлын байруудыг танилцуулдаг бөгөөд, хэрвээ тусгай зөвшөөрөлгүй ажлын байранд ажилл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тухайн ажилтны виз нь цуцлагдахад хүрдэг. Та бүхний ажиллаж буй орон нутаг, цаашлаад ажлаас хангаж буй байр нь ямар байдалтай, ямаршуухан байр вэ? Таны оршин сууж буй байр үнэхээр “Амины орон сууц” -н бүртгэлтэй байр мөн үү? Арай контейнер, сэндивичин хавтангаар хийсэн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 юм биш биз?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энэ жил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дагуу ирэх шинэ ажилчдын тоог 110 мянга байхаар тогтоод байгаа билээ.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салбарын ажилчдыг хамруулан тооцвол энэ тооноос хавь олон тооны шинэ ажилчид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шилжин ирж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болж байгаа юм. Энэ нь өөрөөр хэлбэл хүн амьдрах хэмжээний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 хомсдмол бүс нутгууда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ажлын байруудад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авчран ажиллуулах

болно гэсэн үг юм. Шинэ ажилчид ирэхтэй зэрэгцэн өмнө нь байгаагүй амины орон сууцнууд гэнэт бий болно гэж байхгүй. Тиймээс ажил олгогчдын зүгээс өнөөх л давчуу нэг өрөө байрандаа ажилчдыг илүү олноор нь байрлуулах юмуу эсвэл хууль бус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уудаа нэмэгдүүлэхэд хүрнэ гэсэн үг юм. Ийм байдал дунд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амьдарлын түвшин, эрүүл мэнд улам л муудахаас аргагүйд хүрнэ.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олноор нь татан ирүүлж буй зуучлах төв болох Солонгосын улсын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нь “Ажиллах хүч” хэрэгцээтэй байна хэмээх байр сууриа ирүүлсэн ажил олгогчдын гомдол саналыг хүлээн авч, яаралтай шийдвэрлэх нэрээр шинээр ирэх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тоог нэмсэн хэдий ч, эдгээр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ч бас бидний адил хүн, хөдөлмөрчин нэгэн гэдэг асуудлын гол цөмийг нь умартсаар, энэ тал дээр нүдээ тас анисаар байна. Иймээс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хамтдаа үргэлжлүүлэн “Бид бүгд ажлын төхөөрөмж,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багаж эсвэл үйлдвэрийн машин биш, бид бол та нарын адил хүн! Тиймээс хүн амьдрах боломжгүй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 биш хүний ёсоор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боломжтой оршин суух байр,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хэмээн хамтдаа дуу хоолойгоо хүргэсээр байх нь зүйтэй юм.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ийг олноор нь албадан гаргахыг эсэргүүцэж байна.



Ким Юн Чоль (Металь эдлэл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ийн Дэгу хотын салбар, Сонсо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ын зөвөлгөө өгөх төвийн тэргүү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өнгөрөгч 2 дугаар сарын 26 ны өдөр бүртгэлгүй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албадан гарга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бөгөөд энэхүү шийдвэрийн гүйцэтгэгдэх хугацаа нь 3 дугаар сарын 2-с 4 дүгээр сарын 30-ыг хүртэл буюу бүтэн 2 сар юм. Энэ удаагийн албадан гаргалтын үзлэг шалгалт нь ажил явагдаж буй үйлдвэр, үйлчилгээний газрууд дээр явагда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Коронагийн аюул ид нүүрлээд байх өнгөрсөн 3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гадны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лын улмаас газар тариалан, үйлдвэр,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ууд хүндхэн байдалтай байсан билээ. Гэтэл цар тахлын аюул суул мушгин буй энэ цаг үед шинэ ажиллах хүчийг олноор нь татан ирүүлэн, улмаар хүнд хэцүү цаг үед хамтдаа байж, өөр өөрийн 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ээ чимээгүйхэн ажиллаар ирсэн бүртгэлгүй

гэх тодотголтой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нэг ёсондоо хөөн гаргаж буй хэрэг юм. Өөрсдийн хэрэгцээний дагуу хэрэгтэй үедээ хэрэглэхчээд, үе нь дуусахаар хэрэглээнээс гаргаж буй Солонгосын төр хэт хувиа бодсон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на.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ийн тоо барагцаагаар 400 мянга орчим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дгээр иргэд яаж яваад, хэрхэн бүртгэлгүй гэх тодотголтой болсон тухай энд дэлгэрэнгүй авч үзье. Гэрээний ажилчин ажлын байраа өөрчлөх боломжгүй нөхцөл байдлын дунд, яах ч аргагүй шалтгааны улмаас тухайн ажлын байрыг орхин гарч ирснээ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ний тоонд шилжинэ.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салбарт шөнийн цагаар, уртасгасан цагаар ажилласан ч илүү цагийн хөлс бодогддоггүй. Тиймээс цалингийн хувьд үйлдвэрийн ажилчны авч буй цалингийн тал хувьтай нь тэнцэх цалинг дөнгөн данган авдаг. Ийм байдлыг удаан тээ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чин тухайн ажлын байрыг орхин гарснаа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н болох жишээтэй. Гэтэл иргэд ингэж бүртгэлгүй болсоор байгаа нь үнэхээр дан ганц иргэдийн өөрсдийнх нь буруу гэж үү? Эсвэл үүнд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уул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сиймхий буруугаар нөлөөлсөөр байна уу? Буруу тогтолцоо бүхий хуулийн заалтыг шинэчлэн засахгүйгээр энэхүү хуулийг дагаж мөрдсөнгүй хэмээн иргэдийг “Хууль бус” хэмээх тодотголтой болгон,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мөрдөн мөшгиж, албадан гаргаж буй нь хөгжингүй орны гаргах үйлдэл хэрхэвч биш юм. Энэ тал дээр үнэхээр ичихгүй байна гэж үү? үртгэлгүй ажилчид үнэхээр энэ улсад орши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 байхгүй байна гэж үү? Солонгос иргэд, бүртгэлтэй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хийхээс татгалзаж буй ажлын байрууд эцэст нь бүртгэлгүй ажилчдад л шилжин ирдэг. Өөрөөр хэлбэл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 үгүй

бол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 зогсонги байдалд орно гэсэн үг юм. Байдал ийм байхад бид хэнтэй ажлын байрны маргаан хийж байна вэ гэдгээ дахин нэг харах ёстой болоод байна. Хамгийн хэцүү, хүнд 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 л очсон байдаг. Бүртгэлгүй ажилчин иргэд ч бас хэзээ нэгэн цагт өөрсдийн эх орон руугаа, хайртай гэр бүл, найз нөхдийнхөө зүгт очсон байна. Тиймээс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 нь хэтэрсэн гэх шалтгаанаар эдгээр иргэдийг гэмт хэрэгтэн мэт үзэж, хагас хүчирхийлсэн, хагас хүний эрх зөрчсөн байдалтайгаар албадан гаргахаа зогсо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Дэгу хотод 2 дугаар сарын 17-с эхлэн долоо хоног бүрийн Баасан гаргийн 11 цагт тус хотын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харъяатын албаны байрны урд албадан гаргахыг эсэргүүцэн тайвнаар жагсаж буй бөгөөд энэхүү жагсаалд Дэгу болон Кёнбүг мужийн бүс нутгий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хүний эрхийн байгуулгууд ээлж дараагаараа оролцон жагссаар байгаа билээ. Дэгу хотоос эхлэлтэй энэхүү тайван жагсаал орон даяар өргөжин тархахыг хүсэж байна. Бид хэзээд өөр хоорондоо уялдаа холбоотой гэдгээ санан энэхүү хөдөлгөөнийг орон даяар өргөжүүлэн хамтдаа эсэргүүцэхийг уриалж байна. Бид л эсэргүүцэж, дуу хоолойгоо өргөхгүй бол өөрчлөгдөх зүйл нэгээхэн ч үгүй. Тиймээс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ажил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эрх, хувь хүний эрх, эрх чөлөөг нь хамтдаа хамгаалан сайжруулцгаа. Албадан гаргалтыг даруй зогсоохий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Бүртгэлгүй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бүртгэлтэй болг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Ажлын өөрчлөн солих тал дээр эрх чөлөөгүй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заалтыг хүчингүй болг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Эсэргүүцэж байна!





To'lanmagan ish haqi, ishlab chiqarishdagi baxtsiz hodisalar, bepul mehnat maslahatlari.

Metall mehnatkashlar kasaba uyushmasi chet ellik ishchilar bilan birgalikda.

Migrant ishchilarning huquqlarini kafolatlamasdan faqat sonini ko'paytiruvchi noto'g'ri siyosatni o'zgartirish kerak!

Jong Yongsop (Migrantlar uyushmasi faoli) Yun Seok-Yol hukumatining migrant ishchilari-ga nisbatan siyosati faqat "sonini kengaytirish" ga ega va "huquqlar kafolati" yo'q. Ular sanoat ob'ektlari va ish beruvchi boshliqlarga buyum kabi zarur bo'lgan migrant ishchilari ta'minotini kengaytiramiz, deyishmoqda, biroq mehnat ekspluatatsiyasi va diskriminatsiyadan aziyat chekishi bilan bog'liq yomon bo'lgan sharoitlar yaxshilanmayapti. Hukumat bu yil 110,000 kishidan iborat bo'lgan E-9 ishga joylashish uchun ruxsatnoma tizimi bilan kirish kvotasini belgiladi. Bu tarixdagi eng yuqori ko'rsatkichlardan biridir. Mavsumiy ishchilardan shu yilning birinchi choragida 27,000 ga yaqin yangi ishchilarni olib kelishadi. Bundan tashqari, kemasozlik sanoatida 14,000 kishi yetishmayabti deb, E-7 vizasi bo'yicha minglab ishchilarni payvandlash, elektr energiyasi va bo'yash sohalariga joriy etishga harakat qilmoqda. Boshqa tomondan, maxsus ishga qabul qilishdagi ma'lum shartlarni bajarib ish joyida ishlayotgan bo'lsa, ishlash uchun ruxsatnoma tizimidagi uzoq muddat davomida qolish uchun alohida holat yaratilib, ular mamlakatdan chiqmasdan 10 yildan ortiq ishlash imkonini beradigan tizim yaratamiz, deyishmoqda.

Biroq migrant ishchilarining yomon mehnat sharoitlari va inson huquqlarining past darajasini yaxshilash bo'yicha rejalarda unchalik ko'p emas. Chunki hukumat migrant ishchilarining mehnat huquqlari va inson huquqlarini kafolatlashni talab qilayotganiga quloq solmay, faqat ish beruvchilar talabiga quloq tutmoqda. Biroq Koreyaning ishlab chiqarish, qishloq xo'jaligi, baliqchilik, qurilish va xi-



lat bermaydi? Faqatgina migrant ishchilarini ko'paytirish, uskuna yoki qul kabi ishlatish kerak deb o'ylaydimi?

Migrant ishchilari ham bir xil odamlar va ishchilardir. Ular Koreya jamiyatida ishlayotgan va yashaydigan bir jamiyatning a'zolaridir. Ish joylarini o'zgartirish erkinligi kafolatlanishi kerak. Odamlar odamdek yashashi mumkin bo'lgan yotoqxonani kafolatlashlari kerak. Ishchilar ishlab chiqarishdagi baxtsiz hodisalardan vafot etmasligi uchun mehnat xavfsizligi kafolatlanishi kerak. Ish haqini kechiktirmasdan to'g'ri olishlari uchun qonunni to'g'ri qo'llash kerak. Og'zaki haqorat qilish, tajovuz qilish va kamsitishlarning oldini olish uchun diskriminatsiyaga qarshi qonun qabul qilinishi kerak. Barcha migrant ishchilarining inson huquqlari va mehnat huquqlari kafolatlanishi kerak. Noto'g'ri siyosatni o'zgartirish kerak. Keling, migrant ishchilari tashkilotlari va kasaba uyushmalari bilan birgalikda gapiraylik va harakat qilaylik.

“Mehnat Vazirligi ombor va fermer xo'jaliklarini emas, balki qonuniy uy-joylarni ta'minlovchi ish o'rinlarini joriy etishi kerak!”



Kim Ichan ([Yerliklarning bekati] faol qatnashchi)

2020-yilning oxiri, Mehnat Vazirligining so'rov natijalariga ko'ra unda 'migrant ishchilarining 70% dan ortig'i' "sendvich panelar" yoki "konteynerlar" dan yasalgan "vaqtinchalik binolarda" yashaydi deb e'lon qilgan edi. O'shandan beri ikki yildan ortiq vaqt o'tdi, ammo uning qanday yaxshilangani haqida hali hech qanday habar yo'q. Boshqacha qilib aytganda, migrant ishchilarining qariyb 70% hali ham 'uyga xos bo'lmagan joyda' yashab, ishlab kelmoqda. Aytilishicha, hozirda Koreya jamiyati «aholi o'sishi jarlik yoqasi» dagi holatta deb ta'kidlayabti. Tug'ilish darajasi 0,7% ni tashkil etib, bu dunyodagi eng past ko'rsatkichlardan biridir. Seul va metropoliten kabi ulkan shaxarlardan tashqari, iqtisodiy faoliyat bilan shug'ullanuvchi aholi, asta-sekin kamayib bormoqda va mahalliy yoshlar "kichik ishlab chiqarish", "qishloq xo'jaligi va chorvachilik sanoati", "qurilish sanoati" kabi soxalarga ishga kirmaydilar. Bu shirkatlar joylashgan hududlarda aholi yashashi uchun uylar un-

chalik ko'p emas, yashash uchun qulayliklar ham yetarli emas.

Biroq, migrant ishchilarining aksariyati faqat yosh aholi soni kamayib borayotgan shaharlar chekkasida yoki qishloq joylarida ish topishi mumkin. Ishga ruxsatnoma tizimi xodimlari, faqat shunday joylarga ishga yuboridilar va ruxsat etilmagan ish joyida ishlaydigan bo'lsalar ularning vizalari bekor qilinadi. Sizlar qayerda yashayapsizlar va ish beruvchingiz qaysi turdagi turar joy bilan ta'minlayabti? Uyingiz "turar joy" sifatida ro'yxatga olinganmi yoki konteyner, sendvich panel yoki ombor kabi vaqtinchalik binomi?

Koreya hukumati joriy yilda ishga joylashish uchun ruxsatnoma tizimi bo'yicha 110,000 ga yangi migrant ishchilarini ishga kiritishni rejalashtirmoqda. Mavsumiy ishchilarini bir-lashtirganda, ko'proq ishchilar migrant mehnatini bajarish uchun Koreyaga keladilar. Boshqacha qilib aytganda, ular ko'proq migrant ishchilarini tegishli turar joy mavjud bo'lmagan tuman va qishloqlardagi ish joy-

lariga olib kelib, ish bilan ta'minlaydi. Bu hududda birdaniga "qonuniy", "ro'yxatga olingan" uy joy bo'lishi mumkinmi? Oxir-oqibat, ish beruvchilar ko'proq ishchilarni o'sha yerda mavjud bo'lgan kichkina xonalarda yashashga majbur qiladi va noqonuniy vaqtinchalik binolarni ko'paytiradi. Migrant ishchilarining hayoti va salomatligi bundan ham battar yomonlashishi mumkin.

Migrant ishchilarini tartibga solish uchun mas'ul bo'lgan Koreya Mehnat Vazirligi ish beruvchilarning "ishchi kuchi" haqidagi so'rovlariga tezda javob berdi va joriy etish ko'lamini sezilarli darajada oshirgani bilan, shu ishchi kuchi "odamlar" va "ishchilar" ekanligiga ko'zini yumishga ko'p harakat qilib qilmoqda.

Migrant ishchilar: "Biz texnika, qishloq xo'jaligi texnikasi yoki ishlab chiqarish materiallari emasmiz! Insonmiz! Odamlar yashay olmaydigan vaqtinchalik binolarda emas, odamdek yashashi mumkin bo'lgan uyda yashash va ishlash mumkin bo'lgan joydagi ish bilan kafolatlang!" deb birgalikda talab qilishlari kerak.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ga nisbatan bosim va deportatsiya qilinishiga qarshimiz.



Kim Yongchol (Metall ishchilar uyushmasi Daegu filiali Seongseo sanoat majmuasi mintaqaviy filiali maslahat boshlig'i)

Adliya vazirligi 26 fevral kuni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ga nisbatan keskin choralar ko'rilishini ma'lum qildi. Bu safar hukumatning birgalikda rey-d o'tqazilishi 2-martdan 30-aprelgacha bo'lgan ikki oylik davrdir. Biroq, bu safar ish joylarida ham rey-d qilish siyosatidir. Korona davridagi 3 yil davomida migrant ishchilari yetishmaganidan, qishloq xo'jaligi, zavodlar va xizmat ko'rsatish sohalarida juda ko'p qiyinchiliklar yuzaga keldi. Biroq, endi Korona davridagi cheklovlar bekor qilinganidan so'ng, ko'plab yangi ishchilar kiritilmoqda va Korona davrida jon berib ishlagan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 haydab chiqarilmoqda. Kerak bo'lganda ishlatib, kerak bo'lmasa tashlab yubor-

adigan Koreya hukumatining vahshiyonaligidir.

Hozirda 400,000ga yaqin ro'yhatga olinmagan migrantlar bor. Keling, nima uchun ular ro'yxatdan olinmaganligini ko'rib chiqaylik. Ishga joylashish uchun ruxsatnoma tizimiga ko'ra, ish joyini o'zgartirish mumkin emasligi uchun, agar ular ilojisizlikdan ish joyini tark etsa, ro'yxatdan o'tmagan bo'lib qoladi. Dehqonchilik, baliqchilik va qishloq xo'jaligida hatto tungi yoki qo'shimcha ish uchun ham qo'shimcha to'lovlar yo'q. Shunday qilib, ular ro'yhatdan o'tgan ish joyidan chiqib ketadigan bo'lsa, chunki ularning maoshi zavodda ishlaydiganlarning yarim maoshini tashkil qilgani uchun ish joyidan chiqib ketisa, ro'yxatdan o'tmagan bo'lib qoladi. Ro'yhatga olinmay qolgan uchun migrantning qandaydir aybi bormi? Koreyaning huquqiy tizimi noto'g'rimi?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 yomon qonunlarni tuzata olmagani yoki yomon qonunlarga amal qilmagani uchun ularni "noqonuniy" deb atashi rivojlangan mamlakatga o'xshamaydi. Haqiqatan ham uyalmayszmi?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ga ehtiyoj qolmadimi? Shu haqida so'ramoqchiman. Mahalliy aholi ishchilari va ro'yxatdan o'tgan migrant ishchilari mehnat qilayotgan ishlar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ng ham ish joyidir.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siz Koreya jamiyati to'xtab qoladi. Biz

kim bilan ish o'rinlari uchun janjallashyapmiz? Eng sharoiti yo'q joylarda ishlash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ng zimmasidadir.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 ham bir kun kelib o'z mamlakatlariga qaytishadi. Ular sevikli oilasi va do'stlarining bag'riga qaytishadi. Shunday ekan, istiqomat qilish muddati o'tib ketgani uchun og'ir jinoyatchi sifatida munosabatda bo'lmay, zo'ravonlik va inson huquqlariga qarshi kurashni to'xtatib va ularni majburiy jo'natib yuborish reydlarini o'tqazishni endi bas qiling!

Tegu shahrida, 17-fevraldan boshlab, har juma kuni soat 11:00 larda Tegu Immigratsiya idorasi oldida reydg qarshi miting o'tkazilmoqda. Har kuni Tegu va Shimoliy Kyonsan provinsiyasidagi mehnat va inson huquqlari tashkilotlari navbatma-navbat norozilik namoyishlari o'tkazib kelmoqda. Umid qilamanki, Tegudagi norozilik butun mamlakat bo'ylab tarqaladi. Biz hammamiz bir-birimizga bog'langanmiz, keling butun mamlakat bo'ylab birgalikda norozilik bildiraylik. Agar siz jang qilmasangiz, hech narsa o'zgarmaydi. Migrant ishchilarining mehnat huquqlari va inson huquqlarini yaxshilash uchun birgalikda kurashaylik. Majburiy jo'natib yuborish va reydlar o'tqazishni darhol bas qiling!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 qonuniylashtiring! Ish joyini o'zgartirish erkinligisiz ishga joylashishga ruxsat berish tizimini bekor qiling! Jang qilaylik!



Эмгек акы төлөнбөө, өндүрүштөгү кырсыктар жана башкалар боюнча акысыз кеңеш берүү.

Металлургиялык жумушчулардын профсоюз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колдойт.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укугун кепилдик кылбай, алардын санын көбөйтүүгө гана багытталган туура эмес саясатты өзгөртүү керек!

Джонг Ён Соп (мигранттар союзунун активисти)
Юн Сок Елдун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а карата мамлекеттик саясаты "сандарды кеңейтүүгө" гана багытталган жана "укуктардын кепилдиктерин" камтыбайт. Алар, өнөр жайларга жана иш берүүчүлөргө керектүү товар сыякту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санын кеңейтүү жөнүндө гана сөз кылышат, бирок эмгекти эксплуатациялоо жана дискриминация сыяктуу жаман шарттарды жакшыртышпайт. Өкмөт быйылкы жылы 110,000 E-9 жумушчусуна кирүү квотасын белгиледи, бул эң жогорку көрсөткүч. Жылдын биринчи жарымында эле алар 27 миңге жакын жаңы сезондук жумушчуларды ишке киргизмекчи. Алар ошондой эле кеме куруу тармагында 14 000 адамдын жетишсиздигин айтып, ушуга байланыштуу ширетүүчү, электр энергиясы жана сырдоочу тармактарга E-7 визасы менен миңдеген жумушчуларды тартууга аракет кылып жатышат. Башка жагынан, иштөөгө уруксат берүү системасында бир эле ишканада белгилүү бир шарттарды аткарган учурда, өлкөдөн чыкпастан 10 жылдан ашык иштөөгө мүмкүнчүлүк берүүчү "узак мөөнөткө калуу үчүн атайын жагдайды" түзүү тууралуу сөз болууда. Бир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начар иштөө шарттарын жана адам укуктарынын начардыгын жакшыртуу пландары аз. Себеби, өкмөт эмгек жана адам укуктарын камсыз кылууну талап кылган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үнүн укпай, иш берүүчүлөрдүн гана талабын угуп жатат. Бирок Кореянын өндүрүш, айыл чарба, балык уулоо, курулуш жана тейлөө



тармактары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сыз кадимкидей иштей албасын баары билишет. Корей экономикасы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а көбүрөөк муктаж болуп калды, анткени ички жумушчу күчү азайып, 3D (кир, кооптуу жана оор жумуш) жасалбай жатат. Тактап айтканда, COVID-19 учурун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иштеген тармактардагы иш берүүчүлөр жумушчу күчү жетишсиз деп кыйкырып жатышты. Бул COVID-19 пандемиясынын учурун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маанилүүлүгүн тастыктады. Бирок эмне үчүн өкмөт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укуктарын жакшыртып, кепилдик бербейт! Сиз чындап эле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санын көбөйтүп, алар станок жана кул сыяктуу иштесин деп жатасызбы! Эмгек мигранты да адам жана жумушчу. Ал корей коомунда иштеп, жашап жаткан бир коомдун мүчөсү. Ишканаларды алмаштыруу эркиндиги камсыз кылыныш керек. Адамдар адамдай жашай турган жатакана кепилдениш керек. Жумушчулардын өндүрүштөгү кырсыктардан каза болбошу үчүн эмгектин коопсуздугу камсыз кылыныш керек. Эмгек акыны кечиктирбестен талаптагыдай алуу үчүн мыйзам турундо болуш керек. Оозеки кемсинтүүнү, зордук-зомбулукту жана дискриминацияны болтурбоо үчүн дискриминацияга каршы мыйзам кабыл алыныш керек. Иштеп жаткан бардык мигранттардын адамдык жана эмгек укуктары кепилдениш керек. Туура эмес саясатты өзгөртүш керек. Келгиле, өз укуктарыбызды айтып,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 уюмдары, профсоюздар менен биргеликте болулу.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 кампалар менен кепелерди эмес, мыйзамдуу турак жай объектилери бар жумуш орундарын сунушташы керек!»



Ким И Чан ([Жерликтин аялдамасы] активисти)
2020-жылдын аягында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 сурамжылоонун жыйынтыгын чыгарды, ага ылайы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70%дан ашыгы "сендвич-панель" же "контейнер" болгон "убактылуу имараттарда" жашайт деген жыйынтык чыккан. Ошондон бери эки жылдан ашык убакыт өттү, бирок кандай жакшыртуу каралганы тууралуу дагы деле сөз жок. Башкача айткан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70%га жакыны дагы эле "турак жайга окшошпогон жерлерде" жашап жана иштеп келишет. Корей коому учурда "демографиялык жардын" абалында экени айтылат. Төрөттүн көрсөткүчү 0,7%, бул дүйнөдөгү эң төмөнкү көрсөткүчтөрдүн бири. Сеул жана шаар четиндеги шаарлар сыяктуу ири шаарлардан

тышкары, экономикалык ишмердүүлүктө иштеген калктын саны акырындык менен азайып баратат, ал эми жергиликтүү жаштар «майда өндүрүш тармактарында», «айыл чарба жана мал чарбачылыгында» жана «курулуш индустриясында» жумушка артыкчылык беришпейт. Бул ишканалар жайгашкан аймактарда эл жашай турган үйлөр көп эмес, жашоо үчүн шарттар да жетишсиз. Бир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көбү шаар четинде же жаштардын саны азайып бараткан айыл жеринде гана жумуш таба алышат. Жумушка уруксат берүү системасы боюнча жумушчулар мындай жерлерде гана иштөөгө дайындалат, эгерде алар уруксат берилбеген жумуш ордунда иштешсе, алардын визалары жокко чыгарылат. Сиз кайда жашайсыз жана жумуш

берүүчүңүз сизге кандай турак-жай берди? Үй "турак жай" катары катталганбы же контейнер, сэндвич-панель же кампа сыяктуу убактылуу курулуш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ишке орноштуруу үчүн жооптуу болгон Кореянын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 иш берүүчүлөрдүн "жумушчу күчүн" киргизүү өтүнүчүнө тез арада жооп берип, ишке ашыруунун масштабын бир топ көбөйттү, бирок «жумушчу кучунун» негизи «адам» жана «жумушчу» экенин көрмөксөнгө салууга катуу аракет кылуу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томонкудой талап кылышы керек: «Биз машина, айыл чарба техникасы жана өндүрүш материалдары эмеспиз! Жашоого мүмкүн болбогон убактылуу имараттарды эмес, адамдын жашоосу үчүн нормалдуу шарты бар жумуш орундарын камсыз кылгыла!»

Биз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репрессиялоого жана депортациялоого каршыбыз.



Ким Ёнг Чоль (Сонгсо өнөр жай комплексинин аймактык болумунун башкы консультанты, Тэгү шаарындагы металлургиялык жумушчулар профсоюзунун бөлүмү)
26-февралда Юстиция министрлиги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а катаал чара көрүлөрүн билдирген. Бул ирет биргелешкен өкмөттүк көзөмөл 2-марттан 30-апрелге чейин белгиленген. Тактап айтканда, бул жолу курс жумуш орундарына да багытталган. COVID-19 мезгилинде 3 жыл ичинде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жетишсиздигинен айыл чарбасында, заводдордо жана тейлөө тармагында чоң кыйынчылыктар болду. Бирок, азыр COVID-19 аяктагандан кийин, көптөгөн жаңы жумушчулар алынып келинип, COVID-19 мезгилинде ашыкча жана унчукпай иштеген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чыгарылууда.

Аларды керек учурда колдонуп, керексиз учурда ыргытып жиберген Корея өкмөтү жапайычылык кылууда. Учурда 400 миңге жакын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бар. Келгиле, алардын кантип документсиз мигрант болуп калганын карап көрөлү.

Жумушка уруксат берүү тутумунда жумуш ордун алмаштыруу мүмкүн эмес, ошондуктан жумуштан чыгып кеткен учурдан мигранттар документсиз болуп калышат. Айыл чарба жана балык уулоо тармагында түнкү жана ашыкча иштегендер үчүн пособие төлөнбөйт. Эмгек акы заводдордо төлөнүүчү айлык акына караганда аз болгон учун, мигранттар жумушунан качып, документсиз болуп калышат.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документсиз болуп калышына өздөрү күнөөлүүбү? Же Кореядагы туура эмес мыйзамдын айынанбы? Жаман мыйзамды оңдоонун ордуна, документи жок мигранттарды мыйзам бузду деп айыптап, депортациялоо менен коркутушат. Мунун баары өнүккөн өлкө үчүн жакшы эмес. Кантип алар уялышпайт?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керек эмеспи? деген суроо бергим келет. Корей жумушчулары да, документи бар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да качкан жумуштарды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толтурууда.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болбосо, корей коому жөн эле токтоп калат. Биз эмне жөнүндө талашып жатабыз?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эң кир жумушка ээ.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эртеби-кечпи мекенине кайтышат. Алар сүйүктүү үй-бүлөлөрүнө жана досторуна кайтышат. Ошондуктан, алардын мыйзам чегинде кала турган мөөнөтү бүттү деп эле чоң кылмышкер катары карагыла, зордук-зомбулук жана адамгерчиликсиз жол менен кармап, күч менен депортациялоону токтоткула!

Тэгү шаарында 17-февралдан баштап, ар жума күнү саат 11:00дө Тэгү иммиграция кеңсесинин алдында депортацияга каршы митинг өткөрүлүп жатат. Тэгү менен Түндүк Кёнсандагы эмгек жана укук коргоо уюмдары күн сайын кезектешип нааразылык акциясына чыгышып жатат. Тэгү шаарындагы нааразылык акциясы бүт өлкөгө жайылат деп ишенебиз. Биз баарыбыз бири-бирибиз менен байланышканбыз, келгиле, жалпы өлкө менен чогуу митингге чыгалы. Аракет кылбасан эч нерсе өзгөрбөйт. Келгиле,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иштөө шарттарын жана адам укуктарын жакшыртуу үчүн биргелешип аракет кылабы.

Дароо зордук-зомбулук депортацияны токтоткула!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мыйзамдаштыргыла! Жумушту ээн-эркин алмаштырууга жол бербеген, жумушка уруксат берүү системасын жойгула! Күрөш!





Бесплат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по трудовым вопросам, таких как невыплат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т. д.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союз рабочих поддерживает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обходимо изменить неправильну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только на расшир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 гарантируя их права!

Джонг Ён Соп (активист профсоюза мигрантов)
Полити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Ёля в отношен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правлена только на «расшир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и не содержит «гарантий прав». Говорится только о расширении численност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словно товара,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мышленным объектам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 но не улучшаются плохие условия, такие как трудов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и дискримина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тановило квоту на въезд в 110 000 работников с разрешением на работу E-9 в этом году,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Только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собираются привезти около 27 000 новых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А также говорят о нехватке 14 000 человек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в связи с чем пытаются привлечь тысячи рабочих с визой E-7 в области сварк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и окраск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говорится о создании «особого случая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работать более 10 лет, не покидая страну, пр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й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предприятии. Однако планов по улучшению плохих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низкого уровня прав человек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очти нет.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рислушивается к голосам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трудовых прав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а прислушивается только к требованиям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днако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фера услуг не могут нормаль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без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стала больше нуждаться в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ах, потому что внутренняя рабочая сила сокращается, а 3D (грязная, опасная и тяжелая работа) не выполня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ремя COVID-19 работодатели те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де работали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кричали о нехватке рабочей силы. Тем самым была подтверждена важность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COVID-19. Но поч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улучшает и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прав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ужели вы думаете только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чтобы они работали как машины и рабы! Трудовой мигрант – это тоже человек и работник.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од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и живёт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Должна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а свобода по смене предприятия. Должно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о общежитие, где люди могут жить по-человечески.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труда, чтобы рабочие не погибл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кон должен применяться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могла быть получена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без задержек.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анти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й закон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ловесных оскорблений, насилия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Должны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ы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и трудовые права всех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Неправильная политика должна быть изменена. Давайте говорить о своих правах и действовать вместе с организациям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профсоюз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должна рекомендовать места работы,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легальные жилищные учреждения, а не склады и шалаши!



Ким И Чан (активист ([Остановка землянина])
В конце 2020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обнародовало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более 70%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т во «временных постройка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обой «сэндвич-панели» или «контейнеры». И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более двух лет, но до сих пор нет ни слова о том, какое улучшение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около 70%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о-прежнему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местах, трудно похожих на жильё». Говорят, что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рыва».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0,7%,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в мире. Не считая мегаполисов, таких как Сеул и пригороды,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занятог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щается, и молодые коренные жители не предпочитают места работы в «мал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и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районах,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эти предприятия, не так много домов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людей, а также не хватает удобств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могут найти работу только на окраинах городов или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где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щается.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рабочие направляются только в такие места, и их визы аннулируются, если они не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на неуполномоченном месте работы. В какой местности Вы проживаете и какое жильё Вам предоставил Ваш работодател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ли дом как «жилой объект» или это временная постройка типа контейнера, сэндвич-панели или склада?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вести в этом году 110 000 нов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Если добавить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т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ридут в Корею на работу.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они будут привозить ещё больш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 места работы в районах

и селах, где до сих пор нет подходящего жилья, и заставлять их работать. Может ли в таком районе вдруг появиться «легальны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дом? В конце концов, работодатели опять же заставят ещё больше рабочих жить в существующих крошечных комнатах и увеличат количество незаконных временных построек. Условия жизни и здоровь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может ещё больше ухудшиться. Корей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отвечающее з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о на запрос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недр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 масштабы внедрения, но изо всех сил старается закрыть глаза на тот факт, что основой этой «рабочей силы» является «человек» и «рабочий».

Трудовым мигра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возлагать: «Мы не машины, н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техника и н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Обеспечьте места работы с нормальным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жилья, а не временные постройки, где невозможно жить!»

Мы выступаем против репрессий и депортаци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им Ёнг Чоль (глав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нсо, отделения профсоюза металлистов в Тэгу)
26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что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жесткие меры против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 этот раз совмест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слежка назначена на период со 2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В частности, на этот раз курс направлен также и на места работы. В период COVID-19, в течение 3 лет, в связи с нехваткой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были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на фабриках и в сфере услуг. Однако теперь, когда COVID-19 закончилась, вводи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рабочих, а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непосильно и безмолвно работали в период COVID-19, выгоняют.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ует их, когда они нужны, и выбрасывает их, когда они не нужны, ведет себя варварс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400 000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Давайте разберемся, как они стал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мигрантами.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смена места работы невозможна, поэтому в случае неизбежного покидания места работы, мигранты становятс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н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особие за ночное или сверхурочное время. И так как зарплата выходит наполовину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зарплатой, выплачиваемой на заводах, мигранты убегают с места работы и становятс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 том что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становятс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иноваты они сами? Или же причина состоит в неправильной правовой системе Кореи?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исправить плохой закон, обвиняют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 несоблюдении закона и грозят депортацией. Всё это не к лицу для развитой страны.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стыдно?

Я хочу спросить,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разве не нужны? Рабочие места, которые избегают и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заполняют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Без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осто остановится. О чём мы вообще спорим? На долю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ыпадает самая грязная работа.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вернут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Вернутся к своим любимым семьям и друзьям. Поэтому не относитесь к ним как к большим преступникам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закончился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прекратите уже 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и античеловеческим способом отлавливать и насильно выселять их! В Тэгу начиная с 17 февраля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в 11:00 перед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Тэгу проходит митинг против депортации, каждый д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и правозащи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ёнсан по очереди протестуют.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протест в Тэгу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Мы все связаны друг с другом, давайте протестовать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Если не бороться, то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тся.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бороться за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медленно остановите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депортацию! Легализируйте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Отмените систему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не позволяет свободно смени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Бороться!



বিষয়: বকেয়া মজুরি, শিল্প দুর্ঘটনা ইত্যাদি বিষয়ে বিনামূল্যে শ্রম কাউন্সেলিং দেওয়ার জন্য মেটাল ইউনিয়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থে রয়েছে।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অধিকার নিশ্চিত না করে শুধু তাদের সংখ্যা বাড়ানোর ভুল নীতি পরিবর্তন করতে হবে!

জং ইয়ংসব (অভিবাসী শ্রমিক ইউনিয়ন কর্মী) ইউনিসক ইয়ল সরকারের অভিবাসী শ্রম নীতিতে কেবল "সংখ্যা বাড়ানোর" কথা রয়েছে কিন্তু তাদের "অধিকারের গ্যারান্টি" নেই। শিল্প মালিকদের প্রয়োজনে কর্মস্থলে পণ্যের ম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রবরাহ করবে কিন্তু শ্রম শোষণ, বৈষম্য ও খারাপ অবস্থার উন্নতি হচ্ছে না। সরকার চলতি বছর ই-নাইন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কর্মীদের জন্য এন্ট্রি কোটা সর্বোচ্চ এক লাখ ১০ হাজার নির্ধারণ করেছে। শুধু বছরের প্রথমার্ধেই ২৭,০০০ হাজার মৌসুমি শ্রমিক নিয়ে আসা হবে। জাহাজ নির্মাণে ১৪ হাজার কর্মীর ঘাটতি রয়েছে এবং ওয়েল্ডিং, ইলেকট্রিক্যাল ও পেইন্টিং খাতে হাজার হাজার ই-সেভেন ভিসা কর্মী আনতে চায়। অন্যদিকে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 'দীর্ঘমেয়াদি থাকার জন্য বিশেষ ব্যবস্থা' তৈরি করছেন এবং নির্দিষ্ট শর্ত মেনে কর্মস্থলে কাজ করলে দেশে না গিয়ে ১০ বছরের বেশি কাজ করার ব্যবস্থা করছে বলে জানা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খারাপ কাজের পরিবেশ এবং নিম্ন মানবাধিকার মানের জন্য খুব বেশি উন্নতি পরিলক্ষণ নেই। কারন সর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আওয়াজ, শ্রম অধিকার ও মানবাধিকারের দাবি তারা শুনে না, শুধুমাত্র নিয়োগকর্তাদের দাবিই তারা ভাল শুনেন। যাইহোক, সবাই জানে যে অভিবাসী শ্রমিক ছাড়া কোরিয়ার উৎপাদন, কৃষি, মৎস, নির্মাণ এবং পরিসেবা শিল্পগুলি সঠিকভাবে চালু রাখতে পারবে না। অভ্যন্তরীণ শ্রমশক্তি সংকুচিত হচ্ছে এবং



৩ডি (নোংরা, বিপজ্জনক এবং কঠোর পরিশ্রম) কাজ না করার কোরিয়ার অর্থনীতিতে আরও অভিবাসী শ্রমিক প্রয়োজন। বিশেষ করে করোনা কালে যেসব শিল্পে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কাজ করেন, সেখানে জনবলের ঘাটতি নিয়ে নিয়োগকর্তারা এখানে-সেখানে তোলপাড়ে ছিলেন। করোনা দুর্যোগের সময়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গুরুত্ব নিশ্চিত করা হয়েছিল। তাহলে সরকার কে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অধিকারের উন্নতি বা গ্যারান্টি দিচ্ছে না? তারা কি মনে করে যে কেবল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খ্যা বাড়িয়ে মেশিন বা ক্রীতদাসের মতো কাজ করালেই হবে?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একই মানুষ এবং একই শ্রমিক। তারা একই সমাজের সদস্য যারা কোরিয়ান সমাজে কাজ করে এবং বসবাস করে। তাদের চলাচলের স্বাধীনতা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 আমাদের অবশ্যই ভাল আবাসনের নিশ্চয়তা দিতে হবে যেখানে মানুষের মতো বসবাস করতে পারে। শ্রমিকদের নিরাপত্তা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 যাতে শ্রমিকরা শিল্প দুর্ঘটনায় মারা না যায়। যথাযথভাবে আইন প্রয়োগ করতে হবে যাতে মজুরি বকেয়া না করা হয়। মৌখিক নির্যাতন, আক্রমণ ও বৈষম্য রোধে বৈষম্যবিরোধী আইন প্রণয়ন করতে হবে। সকল শ্রমজীবী অভিবাসীর মানবাধিকার ও শ্রম অধিকার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 খারাপ নীতি বদলাতে হবে। আসু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গঠন এবং ট্রেড ইউনিয়নগুলিকে নিয়ে এক সাথে কথা বলি এবং পদক্ষেপ গ্রহণ করি।

শ্রম মন্ত্রণালয়ের এমন কর্মস্থল চালু করা উচিত যা বৈধ আবাসন সরবরাহ করে, গুদাম বা পলিথিনের ঘর নয়!

কিম ই ছান (স্টপ অফ আর্থ লিংস) কর্মী ২০২০ সালের শেষের দিকে, শ্রম মন্ত্রণালয় একটি জরিপ প্রকাশ করেছে যাতে দেখায় যে ৭০% এর বেশি অভিবাসী শ্রমিক "স্যান্ডউইচ প্যানেল" বা "কন্টেইনার" দিয়ে তৈরি "অস্থায়ী ভবনে" বসবাস করেন। তারপর থেকে দুই বছরেরও বেশি সময় পরিয়ে গেছে, এই ব্যাপারে কোন উন্নতি হয়েছে কিনা তার ও কোন খবর এখন আর নেই। অন্য কথায়, প্রায় ৭০% অভিবাসী শ্রমিক এখনও "আবাসন নয়" এমন জায়গায় বসবাস করে কাজ করছে। কোরিয়ান সমাজ বর্তমানে একটি "জনসংখ্যা নিম্নহার" অবস্থার মধ্যে রয়েছে। জন্মহার বিশ্বের সর্বনিম্ন ০.৭% যা পৃথিবীর মধ্যে সবচেয়ে নিচের দিকে রয়েছে। সিউল এবং সিউল মেট্রোপলিটন অঞ্চলের মতো মেট্রোপলিটন অঞ্চলগুলি ব্যতীত, অর্থনৈতিকভাবে কম সক্রিয় এলাকায় লোকের সংখ্যা আস্তে আস্তে কমছে এবং তরুণ আধিবাসীরা আর "ছোট উৎপাদন কারখানা," "কৃষি" এবং "নির্মাণ" এর মতো চাকরিতে নিযুক্ত হয় না। আর এই ব্যবসায়গুলি যে অঞ্চলে অবস্থিত, সেখানে মানুষের বসবাসের জন্য খুব

কম বাড়িঘর রয়েছে এবং পর্যাপ্ত বসবাসের সুযোগ-সুবিধা নেই। যাইহোক, বেশিরভাগ অভিবাসী শ্রমিক যেখানে তরুণ জনসংখ্যা কম যেমন শহরের উপকণ্ঠে বা গ্রামীণ অঞ্চলে কাজ করে থাকেন।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পদ্ধতি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শুধুমাত্র এই ধরনের জায়গায় চাকরির জন্য উল্লেখ করা হয়, যদি তারা লাইসেন্সবিহীন কর্মক্ষেত্রে নিযুক্ত হয় তবে তারা তাদের ভিসা থেকে বঞ্চিত হয়। আপনি কোন এলাকাতে বসবাস করছেন, আপনার নিয়োগকর্তা আপনাকে কোন ধরনের আবাসন সরবরাহ করেছিল? বাড়িটি কি "আবাসিক সুবিধা" হিসাবে নিবন্ধিত ছিল বা এটি কি একটি অস্থায়ী বিল্ডিং যেমন কন্টেইনার, স্যান্ডউইচ প্যানেল বা গুদাম? দক্ষিণ কোরিয়ার সরকার এ বছর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র আওতায় ১ লাখ ১০ হাজার নতুন অভিবাসী শ্রমিক আনার পরিকল্পনা করেছে। যদি মৌসুমী শ্রমিকদের যোগ করেন তবে কোরিয়াতে এসে কাজ 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সংখ্যা অনেক বেড়ে যাবে। বর্তমানে বসবাস 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উপযুক্ত

বাসস্থান নেই এমন অঞ্চল এবং গ্রামগুলিতে আরো অভিবাসী শ্রমিক কাজ করার জন্য আনা হবে। হঠাৎ করে কি ওই এলাকায় 'বৈধ' ও 'নিবন্ধিত' বাড়ি থাকতে পারে? শেষ পর্যন্ত, নিয়োগকর্তারা আরও বেশি শ্রমিককে বিদ্যমান ছোট কর্মস্থলিতে বসবাস করতে বাধ্য করবে এবং অবৈধ অস্থায়ী ভবনবাড়িতে তুলবে যা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জীবন ও স্বাস্থ্যের আরও অবনতি হতে পারে।

অভিবাসী শ্রমিক সরবরাহ করার দায়িত্বে থাকা দক্ষিণ কোরিয়ার শ্রম মন্ত্রণালয় নিয়োগকর্তাদের দাবির প্রতি সাড়া দিয়ে দ্রুত "শ্রমিক নিয়ে আসার ব্যবস্থা" করছে এবং এর সংখ্যার পরিমাণ উল্লেখযোগ্যভাবে বাড়িয়েছে, শ্রমশক্তি হল "মানুষ" আসলে শ্রমিকের দিক থেকে আগেই চোখ বন্ধ করে রেখেছে।

অভিবাসী শ্রমিকগণ বল "আমরা যন্ত্রপাতি, কৃষি যন্ত্রপাতি বা উৎপাদনের মেশিন নই! মানুষ বসবাস করতে পারে না এমন অস্থায়ী আবাসন নয় মানুষ হিসাবে বসবাস করতে পারব এমন আবাসনে থাকার জায়গার ব্যবস্থা করুন! ব্যবস্থা করার জন্য একসাথে দাবী জানাই।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জোর পূর্বক নির্বাসন ও ধরপাকড় অভিযান বন্ধ করুন !



কিম ইউং ছল(মেটাল শ্রমিক ইউনিয়ন দেপ্ত আঞ্চলিক শাখা সংস ইন্ডাস্ট্রিয়াল এরিয়ার কাউন্সিলিং ডিরেক্টর) গত ২৬ ফেব্রুয়ারি বিচার মন্ত্রণালয় ঘোষণা করে, তা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বিরুদ্ধে ব্যবস্থা নেবে। এবার ২ মার্চ থেকে ৩০ এপ্রিল পর্যন্ত দুই মাসের এই অভিযান চলবে। বিশেষ করে এবার কর্মক্ষেত্রেও কড়া কড়ি আরোপের পরিকল্পনা রয়েছে। করোনাকালীন তিন বছ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ঘাটতি দেখা দেয়, যা গ্রামীণ এলাকা, কারখানা ও সেবা শিল্পে ব্যাপক সমস্যার সৃষ্টি করে। তবে এখন যেহেতু করোনা উঠে গেছে, তাতে নতুন শ্রমিক বেশি করে নিয়ে আসবে। করোনাকালে নীরবে কাজ ক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ধরপাকড় করে নির্বাসন করতে যাচ্ছে প্রয়োজনের সময় ব্যবহার করে

প্রয়োজন শেষ হয়ে যাওয়ায় ছুড়ে ফেলে দেয়া কোরিয়ার সরকারের এ এক বর্বরোচিত আচরন। বর্তমানে প্রায় ৪ ০০,০০০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 রয়েছে। আসুন দেখে নেওয়া যাক কেন তারা অনিবন্ধিত হয়েছে।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র অধীনে কর্মস্থল পরিবর্তন করা অসম্ভব, তাই আপনি যদি অনিবার্যভাবে কর্মক্ষেত্রে ত্যাগ করেন তবে আপনি অনিবন্ধিত হবেন। কৃষি এবং মাছ ধরার শ্রমিকদের রাতে বর্ধিত কাজের জন্য কোন ভাতা নেই। সুতরাং, আপনি যদি কারখানার তুলনায় মাত্র অর্ধেক বেতন দেয় এমন কর্মক্ষেত্রে থেকে বেরিয়ে যান তবে আপনি অনিবন্ধিত হবেন। অনিবন্ধিত হওয়া কি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দোষ না দক্ষিণ কোরিয়ার আইনি ব্যবস্থার ভুল? খারাপ আইন ঠিক না করে এবং খারাপ আইন না মানার জন্য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বিরুদ্ধে ব্যবস্থা নেওয়া একটি উন্নত দেশের কাজ নয়। এটা কি সত্যিই লজ্জাজনক নয়?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কি প্রয়োজন নেই? আমি জিজ্ঞেস করতে চাই। কোরিয়ার শ্রমিকরা যে কাজগুলি করতে অনিচ্ছুক সেগুলি হল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কাজ।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 ছাড়া, কোরিয়ান সমাজ থেমে

যাবে। চাকরি নিয়ে আমরা কার সঙ্গে তর্ক করছি? সবচেয়ে নিম্ন মানের কাজগুলি ক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একদিন তাদের দেশে ফিরে যাবে। তাদের প্রিয়জন এবং বন্ধুদের কাছে ফিরে যাবে। সুতরাং ভিসার মেয়াদ অভিক্রম করেছে বলে তাদের বড় অপরাধী হিসাবে বিবেচনা করবেন না। সহিংস এবং মানবাধিকার বিরোধী গ্রেপ্তারের বিরুদ্ধে কঠোর ব্যবস্থা নেওয়া এবং তাদের জোর পূর্বক ধরপাকড় ও নির্বাসন বন্ধ করুন!

১৭ ই ফেব্রুয়ারী থেকে প্রতি শুক্রবার বেলা ১১টায় দেপ্ত ইমিগ্রেশন ব্যুরোর সামনে দমনপীড়নের বিরুদ্ধে একটি সমাবেশ করে আসছে এবং উত্তর দেপ্তর অঞ্চলের শ্রমিক ও মানবাধিকার সেল্টারগুলি প্রতিদিন পাল্লাক্রমে প্রতিবাদ করছে। আমি আশা করি, দেপ্তর বিক্ষোভ সারা দেশে ছড়িয়ে পড়বে। আমরা সবাই সংযুক্ত আছি, আসুন আমরা সারা দেশে একসাথে প্রতিবাদ করি। আপনারা যদি সংগ্রাম না করেন তবে পরিবর্তন হবেনা। আসু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শ্রম অধিকার এবং মানবাধিকার উন্নতির জন্য একসাথে লড়াই করি। অবিলম্বে নির্বাসন বন্ধ করুন!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বৈধতা প্রদান করুন! কর্মস্থল পরিবর্তনের স্বাধীনতা নাই এমন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 বাতিল করুন! সংগ্রাম চলবে!



Konsultasi Gratis Mengenai Ketenagakerjaan (penunggakan upah, kecelakaan industri, dll) Perserikatan Buruh Logam bersama-sama menyertai buruh migran.

Kebijakan Salah yang Hanya Menambah Jumlah Buruh Migran tanpa Menjamin Haknya, Harus Diubah!

Young-Sup, Jung (Aktivis Perserikatan Buruh Migran)

Kebijakan pemerintahan Seok-Yeol, Yoon mengenai buruh migran hanya memiliki 'penambahan jumlah' dan tidak ada 'jaminan hak'. Penyediaan buruh migran yang dibutuhkan di lokasi industri dan oleh pemilik usaha akan diperluas seolah-olah seperti penyediaan barang, tetapi kondisi-kondisi buruk yang sulit karena pengeksploitasian tenaga kerja dan diskriminasi tidak diperbaiki. Tahun ini pemerintah menetapkan kuota masuknya buruh EPS (Sistem Izin Kerja) E-9 dengan jumlah yang tertinggi sampai saat ini yaitu sebanyak 110 ribu orang. Dalam setengah tahun pertama saja, pemerintah mendatangkan buruh musiman baru sebanyak 27 ribu orang. Dan sambil menyatakan bahwa jumlah 14 ribu orang tenaga kerja untuk usaha pembuatan kapal tidak cukup, pemerintah hendak mendatangkan ribuan tenaga kerja dengan visa E-7 di bidang las, listrik, dan pengecatan. Di sisi lain, pemerintah hendak membuat 'izin khusus untuk tinggal dalam waktu panjang' dalam EPS sehingga kalau buruh bekerja dan memenuhi syarat tertentu di satu tempat kerja, buruh bisa bekerja selama 10 tahun atau lebih tanpa harus keluar dari Korea.

Tetapi tidak ada banyak rencana untuk memperbaiki kondisi kerja yang buruk dan rendahnya tingkat hak asasi manusia buruh migran. Hal ini terjadi karena pemerintah tidak membuka telinga terhadap suara buruh migran yang menuntut agar hak buruh dan hak asasi manusianya dijamin, dan hanya mendengarkan tuntutan pemilik usaha saja. Tetapi semua orang tahu bahwa tanpa buruh



migran, usaha manufaktur, pertanian, perikanan, konstruksi, dan jasa di Korea tidak bisa berjalan dengan baik. Karena jumlah tenaga kerja domestik Korea menurun, dan karena mereka tidak mau bekerja di bidang 3D (kotor, bahaya dan kasar), perekonomian Korea semakin memerlukan buruh migran.

Khususnya pada masa COVID-19, di tempat usaha buruh migran bekerja, timbul kekacauan di sana sini karena pemilik usaha kekurangan tenaga kerja. Pentingnya keberadaan buruh migran dipastikan pada masa COVID-19. Tetapi kenapa pemerintah tidak memperbaiki dan tidak menjamin hak buruh migran? Apakah pemerintah berpikir bisa untuk menambah jumlah buruh migran saja, dan membiarkan buruh migran bekerja seperti mesin atau budak? Buruh migran juga adalah sesama manusia dan buruh. Buruh migran adalah sesama komponen masyarakat yang bekerja dan hidup dalam masyarakat Korea. Kebebasan untuk pindah tempat kerja harus terjamin. Asrama yang memungkinkan untuk hidup layaknya manusia harus terjamin. Keselamatan kerja agar tidak kehilangan nyawa karena kecelakaan industri harus terjamin. Agar gaji tidak ditunggak dan bisa diterima dengan benar, hukum harus diterapkan dengan benar. Agar tidak mengalami kekerasan verbal, kekerasan fisik dan diskriminasi harus dibuat hukum anti diskriminasi. Hak asasi manusia dan hak buruh untuk seluruh warga migran yang bekerja harus terjamin. Kebijakan yang salah harus diubah. Mari mengeluarkan suara dan beraktivitas bersama organisasi dan perserikatan buruh migran.

“Kementerian Ketenagakerjaan, Kenalkanlah Tempat Kerja yang Menyediakan Tempat Tinggal yang Legal, Bukan yang Berbentuk Gudang atau Gubuk Petani!”



Yi-Chan, Kim (Aktivis [Jiguine Jeongryujang – Halte Warga Dunia])

Pada akhir tahun 2020, Kementerian Ketenagakerjaan mengumumkan hasil pemeriksaan yang menunjukkan bahwa 'lebih dari 70% buruh migran tinggal di 'bangunan sementara' yang berbentuk 'panel sandwich' atau 'kontainer'. Dan sudah lewat 2 tahun lebih setelah presentasi tersebut, tetapi belum ada kabar bagaimana hal ini sudah diperbaiki. Dengan kata lain, sekitar 70% buruh migran masih saja bekerja sambil tinggal di 'tempat yang bukan rumah'.

Masyarakat Korea sekarang berada dalam keadaan 'tebing populasi'. Angka kelahiran di Korea adalah sekitar 0.7%, salah satu yang terendah di dunia. Selain kota-kota besar seperti Seoul dan daerah wilayah ibukota, jumlah populasi yang terlibat dalam kegiatan ekonomi semakin menurun secara bertahap, penduduk asli yang masih muda tidak lagi bekerja di 'perusahaan manufaktur yang kecil', di 'usaha pertanian dan peternakan', di 'usaha konstruksi', dll. Di daerah tempat perusahaan-perusahaan ini berada, tidak banyak perumahan yang bisa ditinggali dan tidak ada fasilitas kehidupan

yang cukup.

Tetapi kebanyakan buruh migran hanya bisa mendapatkan pekerjaan di mana jumlah populasi orang mudanya menurun seperti di daerah pinggiran kota, atau di desa-desa pertanian dan perikanan. Buruh EPS (Sistem Izin Kerja) hanya ditenalkan tempat-tempat kerja di daerah-daerah tersebut, dan dirampas visa atau izin tinggalnya kalau bekerja di tempat yang tidak diizinkan. Bagaimana dengan daerah tempat tinggal Anda, dan bagaimana keadaan rumah yang disediakan sebagai tempat tinggal oleh pemilik usaha Anda? Apakah rumah tersebut terdaftar sebagai 'fasilitas tempat tinggal', atau berbentuk bangunan sementara seperti kontainer, panel sandwich atau gudang?

Tahun ini pemerintah Korea hendak mendatangkan 110 ribu orang buruh migran EPS. Kalau digabungkan dengan jumlah buruh musiman, lebih banyak lagi jumlah buruh yang datang ke Korea dan bekerja sebagai buruh migran. Dengan kata lain, lebih banyak lagi buruh migran yang akan dibawa untuk bekerja di tempat usaha yang terdapat di wilayah dan desa yang sampai sekarang pun tidak memiliki

tempat tinggal yang layak. Apakah di wilayah tersebut tiba-tiba bisa muncul rumah-rumah yang 'sesuai hukum' dan yang 'terdaftar'? Pada akhirnya, pemilik usaha akan membuat lebih banyak lagi buruh untuk tinggal di kamar-kamar sempit yang sudah ada sebelumnya dan akan menambah jumlah bangunan sementara yang ilegal. Kehidupan dan kesehatan buruh migran bisa lebih buruk lagi.

Kementerian Ketenagakerjaan Korea yang bertanggung jawab memperkenalkan buruh migran, cepat menanggapi permintaan pemilik usaha yang membutuhkan 'tenaga kerja', dan meningkatkan kedatangan buruh migran secara besar-besaran, tetapi berusaha keras untuk menutup mata terhadap fakta bahwa tenaga kerja tersebut adalah 'manusia' dan 'buruh'. Buruh migran harus terus bersama-sama menuntut bahwa, "Kami bukan mesin, bukan mesin pertanian dan bukan bahan produksi! Kami adalah manusia! Bukan di bangunan sementara yang tidak bisa ditinggali manusia, tetapi jaminlah tempat kerja yang disediakan rumah di mana kami bisa hidup dan bekerja seperti manusia!

Kami Menentang Pemeriksaan Mendadak dan Pendeportasi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Yong-Chul, Kim

(Kepala Kantor Konsultasi Perserikatan Buruh Logam Daerah Daegu Cabang Kawasan Industri Seongseo)
Pada tanggal 26 Februari Kementerian Hukum mengumumkan akan melakukan pemeriksaan mendadak (sidak) terhadap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Kali ini sidak akan dilakukan secara bergabung oleh pemerintah selama 2 bulan dari tanggal 2 Maret sampai 30 April. Khususnya pada kebijakan kali ini, sidak juga akan dilaksanakan di tempat-tempat usaha. Selama 3 tahun pada masa COVID-19, terdapat kesulitan besar di desa-desa pertanian, pabrik-pabrik dan jenis usaha jasa karena kekurangan buruh migran. Tetapi begitu COVID-19 sudah lewat, sembari mendatangkan buruh baru dalam jumlah yang besar, pemerintah mengusir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yang pada masa sulit COVID-19 terus bekerja keras dalam

diam. Tindakan pemerintah Korea yang saat membutuhkan, mengguna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tetapi membuangnya ketika tidak dibutuhkan lagi, adalah tindakan yang kejam. Saat ini jumlah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adalah sekitar 400 ribu orang. Mari kita perhatikan mengapa mereka menjadi tidak terdaftar.

Karena EPS tidak memperbolehkan untuk pindah tempat kerja, kalau buruh mau tidak mau keluar dari tempat kerja, buruh menjadi tidak terdaftar. Buruh tidak diberikan upah tambahan walaupun bekerja malam atau bekerja lembur di desa pertanian dan perikanan. Tetapi kalau buruh keluar dari tempat usaha tersebut karena besar gajinya hanya setengah dari jumlah gaji buruh yang bekerja di pabrik, status tinggalnya menjadi tidak terdaftar. Kalau status tinggalnya tidak terdaftar, apakah ini adalah kesalahan pribadi buruh migran sendiri? Atau apakah sistem hukum Korea yang salah? Perbuatan yang tidak memperbaiki hukum yang jahat dan yang memberi sebutan 'ilegal' karena buruh tidak mematuhi hukum (yang jahat) serta melakukan sidak terhadap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bukanlah perbuatan yang mencerminkan negara maju. Apakah benar-benar tidak malu?

Kami ingin bertanya, apakah tidak memerlu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Tempat kerja yang tidak disukai oleh buruh Korea dan buruh migran yang terdaftar adalah tempat kerja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Kalau tidak ada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masyarakat Ko-

rea akan mandek. Kita sedang bertikai mengenai tempat kerja dengan siapa? Pekerjaan di lokasi kerja yang paling buruk adalah bagi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pun pada suatu saat akan kembali ke negaranya. Kembali ke pelukan keluarga dan teman-teman yang dikasihi. Karena itu janganlah memperlaku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seperti penjahat besar karena izin tinggalnya lewat, dan sekarang hentikanlah sidak yang menangkap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dengan kekerasan dan yang melanggar hak asasi manusia untuk dideportasi secara paksa!

Mulai dari tanggal 17 Februari, setiap hari Jumat jam 11 di Daegu dilakukan unjuk rasa untuk menentang sidak di depan kantor imigrasi Daegu, dan organisasi-organisasi buruh serta hak asasi manusia di Daegu dan wilayah Gyeong-sangbuk-do setiap hari melakukan unjuk rasa secara bergilir.

Kami berharap agar unjuk rasa di Daegu akan menyebar ke seluruh Korea. Kita semua terhubung, mari melakukan unjuk rasa bersama-sama di seluruh Korea. Kalau tidak berjuang, tidak ada yang berubah. Mari berjuang bersama dan meningkatkan hak buruh dan hak asasi manusia buruh migran.

Segera hentikan sidak dan deportasi paksa! Legalisasi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Hapuskan EPS yang tidak memiliki kebebasan pindah tempat kerja! Berjuang!



បែបបទៈការប្រឹក្សាពិតគិតថ្លៃពីការខកខានរំលោភពលនៃការទទួលប្រាក់ឈ្នួលការងារ, ពីគ្រោះថ្នាក់ការងារជាដើម។ សហជីពលោហៈធាតុនិងនៅជាមួយកម្មករចំណាកស្រុក។

ត្រូវតែកែប្រែគោលនយោបាយខុសដែលគ្រាន់តែបង្កើនចំនួ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ដែលមិនធានាបាននូវសិទ្ធិ

ចងយ៉ង់សប្បុរស (សកម្មជនសហជីពចំណាកស្រុក) គោលនយោបាយ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របស់រដ្ឋាភិបាល យូនសកយល់ មានតែការ ‘បង្កើនចំនួន’ គ្មានការធានាសិទ្ធិ។ រដ្ឋាភិបាលបានដាក់បន្ថែម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ដូចទំនិញក្នុងការបំពេញតម្រូវការកន្លែងការងារនិងថៅកែ, ប៉ុន្តែការរងការកងប្រែប្រួលពលកម្មនិងការរើសអើងលក្ខខណ្ឌការងារគ្មានស្តង់ដារគ្មានការកែលម្អឡើយ។ រដ្ឋាភិបាលបានកំណត់នាំចូលកម្មករនិយោជិត E-9 ចំនួន 11 ម៉ឺននាក់នៅឆ្នាំនេះ ដែលជាចំនួនខ្ពស់បំផុតមិនធ្លាប់មាន។ កម្មករតាមរដូវនាំមកនូវកម្មករថ្មីប្រហែល 2 ម៉ឺន 7 ពាន់នាក់នៅក្នុងឆមាសទីមួយ។ លើសពីនេះ ឧស្សាហកម្មសាងសង់កំពុងកើនឡើងខ្លះខាតមនុស្ស 1 ម៉ឺន 4 ពាន់នាក់ផ្នែកផ្សេងៗ, អគ្គិសនីនិងលាបពណ៌ដែលកំពុងនាំចូលទិដ្ឋភាព E-7 រាប់ពាន់អ្នក។ មួយវិញទៀត, ប្រព័ន្ធអនុញ្ញាតិការងារបានប្រកាសពីការបង្កើត ‘ស្នាក់នៅរយៈពេលយូរ’ ដែលសេសសល់ការងារនៅកន្លែងការងារគ្រប់លក្ខខណ្ឌបានកំណត់, អាចធ្វើការរយៈពេល 10 ឆ្នាំដោយមិនចាំបាច់រំលែកទ្រព្យទៅប្រទេសកំណើត។ ប៉ុន្តែលក្ខខណ្ឌការងារស្តង់ដារ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គ្មានផែនការក្នុងការកែលម្អកម្រិតទាបនៃសិទ្ធិមនុស្ស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នោះឡើយ។ នេះដោយសាររដ្ឋាភិបាលមិនស្តាប់សំឡេង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ការទាមទារធានាសិទ្ធិការងារ, និងសិទ្ធិមនុស្ស, ប៉ុន្តែស្តាប់តែការទាមទាររបស់និយោជក។ ទោះជាយ៉ាងណាក៏ដោយ គ្រប់គ្នាដឹងថាវិស័យផលិតកម្ម, កសិកម្ម, នេសាទ, សំណង់, និងសេវាកម្មរបស់ប្រទេសកូរ៉េមិនអាច



ដំណើរការបានទៅដល់គ្រាន់តែ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សេដ្ឋកិច្ចកូរ៉េកាន់តែត្រូវការ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ដោយសារកម្លាំងពលកម្មក្នុងស្រុកមានការថយចុះហើយកម្លាំងពលកម្ម 3D (កខ្វក់ គ្រោះថ្នាក់ និងពិបាក)។ ជាពិសេសក្នុងសម័យកាលកំណើននៃការងារដែល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ធ្វើការនិយោជកកង្វះកម្លាំងពលកម្មស្ទើរតែគ្រប់កន្លែង។ សារៈសំខាន់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ត្រូវបានបញ្ជាក់ក្នុងអំឡុងពេលគ្រោះជង់កូវីដ។ ប៉ុន្តែហេតុអ្វីបានជាជនជាតិភាគតិចមិនកែលម្អនិងធានាសិទ្ធិ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តើអ្នកគិតថាគ្រាន់តែជាការចាំបាច់ក្នុង ការបង្កើនចំនួ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រឹតតែត្រឹមតែធ្វើការដូចជាម៉ាស៊ីន ឬដូចជាសត្វបានហើយ!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ជាមនុស្សនិងកម្មករដូចគ្នា។ ពួកគេគឺជាសមាជិកនៃសង្គមកូរ៉េដូចគ្នាដែលធ្វើការនិងរស់។ ត្រូវធានានៅសេរីភាពក្នុងការផ្លាស់ប្តូរកន្លែងធ្វើការ។ ត្រូវធានាថាការកំណត់កម្មករស្លាប់ដោយសារគ្រោះថ្នាក់ការងារ។ ត្រូវធានាថាការអនុវត្តច្បាប់អាចទទួលបានប្រាក់ឈ្នួលត្រឹមត្រូវមិនពន្យារការផ្តល់ប្រាក់ឈ្នួល។ ត្រូវបង្កើតច្បាប់ប្រឆាំងការរើសអើងត្រូវតែត្រូវបានអនុម័ត ដើម្បីការពារការប្រើហិង្សាពាក្យសម្តី, ការរំលោភបំពាន។ ត្រូវតែកែប្រែគោលនយោបាយខុសៗ។ សមាគម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សហជីពសេរីកម្ម រួមគ្នាបញ្ចេញមតិនិងសំលេងនិងនាំគ្នាធ្វើសកម្មភាព។

“ក្រសួងការងារត្រូវណែនាំកន្លែងការងារដែលផ្តល់លំនៅដ្ឋានស្របច្បាប់មិនមែនឃ្លាំង, មិនមែនជាផ្ទះផ្ទុំរៀប!”

គឹមអ៊ីឆាន់ (សកម្មជនមណ្ឌលនៃចំណាត់ធ្វើតំណើនៃមនុស្សលើផែនដី) នៅចុងឆ្នាំ 2020, ក្រសួងការងារបានប្រកាសលទ្ធផលនៃការស៊ើបអង្កេតដែលបាននិយាយថា “ជាង 70% 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រស់នៅក្នុង “អគារបណ្តោះអាសន្ន” ដែលធ្វើពី “បន្ទះសាំងសីបង្កប់ស្មៅ” ឬ “កុងតឺន័រ” ។ ជាង 2 ឆ្នាំបានកន្លងផុតទៅហើយនៅមិនទាន់មានការប្រកាសពីភាពប្រសើរឡើងយ៉ាងណានោះទេ។ សប្បញ្ញត្តិអោយឃើញថា 70% 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នៅតែរស់នៅ និងធ្វើការនៅកន្លែងដែលមិនមែនជាផ្ទះ “នេះឡើយ។ សង្គមកូរ៉េបច្ចុប្បន្នកំពុងស្ថិតក្នុងស្ថានភាព “ធ្លាក់ជ្រោះប្រជាជន”។ អត្រាសម្រាលកូនគឺ 0.7% ជាអត្រាទាបបំផុតក្នុងពិភពលោក។ ក្រៅពីទីប្រជុំជនដូចជាទីក្រុងសេអ៊ូលនិងទីក្រុងដូចចំនួនប្រជាជនដែលចូលរួមក្នុងសកម្មភាពសេដ្ឋកិច្ចកំពុងថយចុះជាលំដាប់ ហើយយុវវ័យក្នុងប្រទេសលែងធ្វើការដូចជាក្នុង “ក្រុមហ៊ុនផលិតខ្នាតតូច”, ផ្នែកកសិកម្មនិងបសុសត្វ, ផ្នែកសំណង់។ នៅតំបន់ដែល

ក្រុមហ៊ុនទាំងនេះស្ថិតនៅមិនសូវមានផ្ទះសម្រាប់មនុស្សរស់នៅ ហើយខ្វះនៅប្រព័ន្ធផ្តល់ភាពងាយស្រួលក្នុងការរស់នៅផងដែរ។ តែភាគច្រើ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អាចស្វែងរកការងារបានតែនៅជាយក្រុង, ឬតំបន់ជនបទ។ កម្មករប្រព័ន្ធអនុញ្ញាតិការងារបានបញ្ជូនទៅតែការងារនៅកន្លែងបែបនេះ, ហើយទិដ្ឋភាពរបស់ពួកគេត្រូវបានដកហូតប្រសិនបើពួកគេធ្វើការនៅកន្លែងធ្វើការដែលគ្មានការអនុញ្ញាតិ។ តើតំបន់ដែលអ្នកទាំងអស់គ្នារស់នៅ, ហើយកន្លែងស្នាក់នៅដែលថៅកែផ្តល់អោយជាផ្ទះបែបណាដែរ? តើផ្ទះនោះ “ជាផ្ទះដែលបានចុះបញ្ជីដែរទេ, រឺមួយជាកុងតឺន័រជាផ្ទះធ្វើពីប៉ង់ស៊ី, កន្លែងស្នាក់នៅ ឬជាអគារបណ្តោះអាសន្នដូចជាឃ្លាំង? ក្នុងឆ្នាំនេះ រដ្ឋាភិបាលកូរ៉េគ្រោងនឹងនាំចូល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ថ្មីចំនួន 11 ម៉ឺននាក់ក្រោមប្រព័ន្ធអនុញ្ញាតិការងារ។ រួមបញ្ចូលទាំងកម្មករតាមរដូវកាលផងនេះគឺចំនួនពលករកាន់តែច្រើនមកប្រទេសកូរ៉េដើម្បីធ្វើពលកម្មចំណាកស្រុក។ បញ្ហាថាមានគោលបំណង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កាន់តែច្រើនទៅកាន់កន្លែងធ្វើការ

នៅតាមតំបន់ និងភូមិដែលគ្មានកន្លែងស្នាក់នៅសមរម្យរហូតមកដល់ពេលនេះ។ តើក្លាមៗអាចមានផ្ទះ “ស្របច្បាប់” ផ្ទះ “ចុះបញ្ជី” នៅក្នុងតំបន់នោះដែរឬទេ? នៅទីបំផុត, និយោជកក៏នឹងបង្ខំកម្មករបន្ថែមទៀតឱ្យរស់នៅក្នុងបន្ទប់តូចៗដែលមានស្រាប់, និងបង្កើនអត្រាបណ្តោះអាសន្នខ្ពស់ច្បាប់។ ជីវិតនិងសុខភាព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អាចកាន់តែអាក្រក់ទៅៗ។ ក្រសួងការងារទទួលខុសត្រូវក្នុងការរៀបចំ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បានឆ្លើយតបយ៉ាងរហ័សទៅនឹងសំណើរបស់និយោជកសម្រាប់ “កម្លាំងពលកម្ម” និងបានបង្កើនចំនួនកាន់តែច្រើនឡើង, ប៉ុន្តែព្យាយាមបិទភ្នែកទាំងដឹងថាកម្លាំងពលកម្មក៏បានពី “មនុស្ស” និង “កម្មករ” ក្តី។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បន្ទុកទាមទាររួមគ្នា “ពួកយើងមិនមែនជាម៉ាស៊ីន, ម៉ាស៊ីនកសិកម្ម, ឬសម្ភារៈផលិតទេ! ជាមនុស្ស! សូមធានានៅការរស់នៅក្នុងផ្ទះដែលអាចរស់បានក្នុងនាមជាមនុស្សដើម្បីធ្វើការមិនមែននៅក្នុងអគារបណ្តោះអាសន្នដែលមនុស្សមិនអាចរស់នៅបាននោះទេ!”

យើងប្រឆាំងនឹងការបង្ក្រាប និងការនិរទេសពលករដែលគ្មានឯកសារ។

គឹមយ៉ុងឆល (ប្រធានសាខាតំបន់ឧស្សាហកម្ម សង់ស សាខាតំបន់ថេតុននៃ សហជីពកម្មករដែក) ក្រសួងយុត្តិធម៌បានប្រកាសនៅខែ 2 ថ្ងៃទី 26 ថា នឹងបង្ក្រាប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 ជាការបង្ក្រាបរបស់រដ្ឋាភិបាលរួមលើកនេះមានរយៈពេល 2 ខែ ចាប់ពីថ្ងៃទី 2 ខែ 3 ដល់ថ្ងៃទី 30 ខែ 4 ។ ជាពិសេសគោលការណ៍លើកនេះជាបង្ក្រាបកន្លែងធ្វើការផងដែរ។ កង្វះកម្មករចំណាកស្រុករយៈពេល 3 ឆ្នាំអំឡុងពេលកូវីដដូច្នេះមានការបំបាត់ខ្លាំងនៅតំបន់ជនបទ, រោងចក្រ, សេវាកម្ម។ ប៉ុន្តែពេលនេះលែងមានកូរ៉េប្រជាជនបណ្តេញ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ដែលបានប្រឹងប្រែងធ្វើការក្នុងសម័យកូវីដស្របពេលនាំចូលនៃពលករថ្មីជាច្រើនសន្លឹកសន្លាបវិញ។ យកប្រើ

វាពេលចាំបាច់ ហើយបោះចោលពេលមិនត្រូវការ គឺអំពើអសីលធម៌។ បច្ចុប្បន្ននេះមា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ប្រមាណ ៤០ ម៉ឺននាក់។ តោះមើលថាហេតុអ្វីបានជាពួកគេគ្មានឯកសារ។ នៅក្រោមប្រព័ន្ធអនុញ្ញាតិការងារមិនអាចផ្លាស់ប្តូរកន្លែងធ្វើការបើចេញពីកន្លែងធ្វើការដោយជៀសមិនរួចនឹងលែងមានឈ្មោះក្នុងឯកសារ។ នៅស្រុកស្រែចំការ, ធ្វើការម៉ោងយប់និងថ្ងៃម៉ោងថ្កុំ ក៏គ្មានប្រាក់ឧបត្ថម្ភដែរ។ ដូច្នេះបើរត់ចេញពីកន្លែងធ្វើការដែលប្រាក់ខែត្រឹមពាក់កណ្តាលធៀបនឹងរោងចក្រ នោះគេនឹងក្លាយជាពលករគ្មានឯកសារ។ តើជាកំហុស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ម្នាក់ដែលគ្មានឯកសារតែឯកឯងរឺ? ឬមួយប្រព័ន្ធច្បាប់កូរ៉េខុស? មិនដូចជាប្រទេសអភិវឌ្ឍន៍ឡើយដែលបង្ក្រាប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ដោយហេតុអ្វីបានជា “ខុសច្បាប់” ដោយមិនបាត់ការព្យាបាលអាក្រក់ទាំងមិនបានកែប្រែច្បាប់អាក្រក់នោះទេ។ ពិតទៅដែលគ្មានការខ្មាស? ខ្ញុំចង់សួរថាមិនត្រូវការ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ទេ? ការងារដែលពលករកូរ៉េស្នាក់នៅក្នុងការធ្វើគឺជាការងារ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ដែលមិនមានឯកសារ។ បើគ្មា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ទេ សង្គមកូរ៉េនឹងស្ទះ។ តើយើងឈ្មោះគ្នារៀងការងារជាមួយនរណា? ការងារនៅកន្លែងគ្មានស្តង់ដារគឺជាការទទួល

ខុសត្រូវ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ក៏គង់ត្រឡប់ទៅប្រទេសគេវិញនៅថ្ងៃណាមួយដែរ។ ទៅកាន់គ្រួសារនិងមិត្តភក្តិជាទីស្រឡាញ់របស់ពួកគេ។ ដូច្នេះកុំចាត់ទុកពួកគេថាជាឧក្រិដ្ឋជនធំដោយសារផ្ទុករយៈពេលស្នាក់នៅហើយលបបង្ក្រាបការចាប់ខ្លួនដោយហិង្សា និងប្រឆាំងសិទ្ធិមនុស្ស និងបណ្តេញពួកគេចេញ! ទីក្រុងថេតុបាននឹងកំពុងធ្វើបាតុកម្មប្រឆាំងនឹងការបង្ក្រាបនៅមុខ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វេសន៍ថេតុរៀងរាល់ថ្ងៃសុក្រនៅម៉ោង 11:00 ចាប់ពីថ្ងៃទី 17 ខែ 2 ហើយក្រុមការងារ និងសិទ្ធិមនុស្សនៅក្នុងតំបន់ ថេតុក្បូងប៊ុក ប្រវេសន៍គាត់ជា រៀងរាល់ថ្ងៃ។ យើងខ្ញុំសង្ឃឹមថាការតវ៉ានៅទីក្រុង ថេតុ រីករាលដាលពាសពេញប្រទេស។ បើយើងផ្សាភ្ជាប់គ្នា, សូមធ្វើការតវ៉ារួមគ្នាទាំងប្រទេស។ គ្មានការតវ៉ាប្រឆាំងនឹងគ្មានការផ្លាស់ប្តូរ។ ចូររួមគ្នាតវ៉ាប្រឆាំងដើម្បីលើកកម្ពស់សិទ្ធិពលកម្ម និងសិទ្ធិមនុស្ស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បញ្ឈប់ការបង្ក្រាបដោយបង្ខំ និងនិរទេសជាបន្ទាន់! កែឲ្យ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នឯកសារជាពលករស្របច្បាប់! លុបចោលប្រព័ន្ធអនុញ្ញាតិការងារគ្មានសេរីភាពផ្លាស់ប្តូរកន្លែងធ្វើការ! ប្រយុទ្ធប្រឆាំង!



Libreng labor counseling ukol sa unpaid wages, industrial accidents, at iba pa. Ang Metal Workers Union ay kaagapay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maling patakaran na dagdagan lamang ang bilan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hindi ginagarantiyahan ang kanilang mga karapatan ay dapat baguhin!

Jung Young-sup (labor union activist)

Ang patakaran para sa mga migranteng manggagawa ng pamahalaang Yoon Seok-yeol ay mayroon lamang "pagpapalawak ng mga numero" ngunit walang "garantiya ng kanilang mga karapatan." Nangangako ito na palalawakin ang suplay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kailangan ng mga lugar na industriyal at mga mayari ng kumpanya na parang mga kalakal, ngunit hindi nito pinabubuti ang mga kondisyon na nagpapahirap sa kanila sa pamamagitan ng pagsasamantala sa trabaho at diskriminasyon. Naitala ng pamahalaan ang entry quota para sa mga E-9 EPS workers ngayong taon sa isang record na 110,000. Ang mga seasonal workers ay nagdala ng 27,000 bagong mga manggagawa sa unang kalahati lamang ng taon. Sinasabi rin nito na may kakulangan ng 14,000 sa paggawa ng barko, at nais na magdala nito ng libu-libong E-7 visa workers sa mga larangan ng welding, electrical, at painting. Sa kabilang banda, gagawa raw ito ng "special case for long term stay" para sa employment permit system, at kung makakapagtrabaho ang manggagawa ayon sa ilang kondisyon, mahigit 10 taon siyang makakapagtrabaho nang hindi lumalabas ng bansa.

Gayunpaman, hindi gaanong maraming mga plano sa pagpapabuti ng hindi kanais-nais na mga kondisyon sa pagtatrabaho at mababang pamantayan para sa karapatang pantao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Ito ay dahil hindi pinakinggan ng gobyerno ang tini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kanilang mga kahilingan para sa karapatan sa paggawa at karapatang pantao, kundi nakikinig lamang ito sa mga demanda ng kanilang mga amo. Subalit alam ng lahat na kung wal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mga industriya ng pagmamamupaktura, agrikultura, pangangisda, konstruksiyon at serbisyo ng South



Iniisip ba nila na kailangan lang nilang dagdagan ang bilan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t pagtrabahuhan tulad ng mga makina at alipin?

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mga tao rin at kaparehong mga manggagawa. Sila ay mga miyembro ng parehong lipunan na nagtatrabaho at nabubuhay sa lipunang Koreano. Kailangang garantiyahan ang kanilang kalayaan sa pagpapalit ng lugar na pinagtatrabahuhan. Kailangang garantiyahan ang mga tirahan kung saan maaari silang mabuhay tulad ng tao. Kailangang tiyakin ang kaligtasan sa paggawa upang hindi mamatay ang mga manggagawa dahil sa aksidenteng industriyal. Kailangang maayos ang pagpapatupad ng batas upang hindi magkaroon ng atraso sa sahod at matanggap ito nang maayos. Dapat gumawa ng mga batas laban sa diskriminasyon upang maiwasan ang abusong verbal, pananakit at diskriminasyon. Kailangang garantiyahan ang karapatang pantao at karapatang paggawa ng lahat ng mga nagtatrabahong migrante. Ang mga masasamang patakaran ay kailangang baguhin. Tayo ay magsalita at kumilos kasama ng komunidad ng mga migrante at migrant workers union.

"Dapat ipakilala ng Department of Labor ang mga lugar ng trabaho na nagbibigay ng legal na pabahay, hindi mga bodega, hindi mga farmhouse!"



Kim Yi-chan (aktibista para sa People of Earth's Station)

Sa pagtatapos ng 2020, inilathala ng Ministry of Labor ang isang survey na nagpapakita na "higit sa 70 porsiyento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nakatira sa "pansamantalang gusali" na binubuo ng "sandwich panel" o "container". Mahigit dalawang taon na ang lumipas mula noon, at wala pa ring balita kung paano ito bumuti. Sa madaling salita, tirahan 70%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nagtatrabaho habang nakatira sa "hindi tirahan".

Sinasabing ang lipunang Koreano ay kasalukuyang nasa estadong "talampas ng populasyon". Ang fertility rate ay kabilang sa pinakamababa sa mundo sa 0.7%. Maliban sa mga lugar na metropolitan tulad "agrikultura", Seoul, unti-unting nababawasan ang populasyon ng mga aktibong tao na nagpartisipa sa ekonomiya, at ang mga kabataan ay hindi na gumagawa sa mga trabaho tulad ng "maliit na pagmamamupaktura" o "agrikultura," at "konstruksiyon." Sa lugar kung saan matatagpuan ang mga negosyong ito, kakaunti ang mga bahay na matitirhan ng

mga tao, at walang sapat na mga amenity sa pamumuhay.

Gayunpaman, karamihan sa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makakahanap lamang ng trabaho sa labas ng mga lungsod o sa mga rural na lugar kung saan ang populasyon ng mga kabataan ay lumiliit. Ang mga EPS workers ay itinatalaga lamang sa mga trabaho sa naturang lugar, at kung sila ay nagtatrabaho sa kumpanya na walang lisensiya, sila ay mawawalan ng visa. Anong klaseng bahay ang ibinibigay mo at anong klaseng akomodasyon ang ibinibigay ng employer mo? Ang bahay ba ay nakarehiistro bilang "residential facility," o ito ay isang pansamantalang gusali, tulad ng container, sandwich panel, o bodega

Plano ng pamahalaan ng South Korea na ipakilala ang 110,000 bagong migranteng manggagawa sa ilalim ng employment permit system ngayong taon. Kung idadagdag mo ang mga seasonal workers, mas marami pa ang pumupunta sa Korea para magtrabaho bilang migranteng manggagawa. Sa madaling salita, mas maraming migranteng manggagawa ang pagtatrabahuhan sa mga lugar at baran-

gay na wala pa ring angkop na tirahan. Maaari bang biglang magkaroon ng mga "lehitimo" at "rehistrado" na mga bahay sa ga-noong lugar Sa kalaunan, pipilitin din ng mga employer ang mas maraming manggagawa na tumira sa mga umiiral na maliliit na silid at dagdagan ang mga ilegal na pansamantalang gusali. Maaaring lumala pa ang buhay at kalusuga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South Korean Ministry of Labor, na namamahala sa pagaayos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mabilis na tumugon sa hinihingi ng mga employer na "workforce" at makabuluhang nadagdagan ang laki ng introduksiyon nito, ngunit ito ay bulag sa katotohanan na ang workforce na ito ay mga "tao" at mga "manggagawa."

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patuloy at magkakasama na dapat magsabi, "Hindi kami makina, makinarya sa pagsasaka, materyales sa produksyon! Tao kami! Tiya-kin ang trabaho na nagbibigay ng bahay kung saan maaari kaming manirahan bilang tao, hindi isang pansamantalang bahay na hindi angkop tirhan ng tao!"

Kami ay tutol sa crackdown at deportasyo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ng walang dokumento.



Kim Yong-chul (Chief Counselor ng Seongseo Industrial Complex Regional Branch ng Metal Union sa Daegu) Ipinahayag ng Ministry of Justice noong Pebrero 26 na magkakaroon ng crackdown sa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walang dokumento. Sa pagkakataong ito, ang crackdown ay dalawang buwan mula Marso 2 hanggang Abril 30. Sa partikular,, ang plano ay upang magsagawa ng crackdown maging sa mga kumpanya. Sa loob ng tatlong taon ng panahon ng Covid, nagkaroon ng kakulangan sa bilan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nagdulot ng matinding paghihirap sa mga rural na lugar, pabrika, at industriya ng serbisyo. Gayunpaman, ngayong natanggal na ang Covid, nagkaroon ng malaking pagdagsa ng mga bagong manggagawa at pagpapalis sa mga hindi rehistradong migranteng manggagawa na tahimik na nagtrabaho sa panahon ng Covid. Ang pama-

halaan ng South Korea, na ginagamit ang mga manggagawang ito kapag kailangan at itinatapon kapag hindi kailangan, ay barbariko.

Sa kasalukuyan, tinatayang nasa 400,000 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hindi rehistrado. Tingnan natin kung bakit sila ay nagiging undocumented.

Sa ilalim ng employment permit system, imposibleng baguhin ang lugar na pinagtatrabahuhan kaya kung hindi maiiwasan na umalis sa kumpanya, ang manggagawa ay nagiging undocumented. Sa fishing villages, walang bayad ang trabaho sa gabi at overtime. Kaya, kung umalis ka sa trabaho na kalahati lamang ang ibinibigay na suweldo kumpara sa pabrika, ikaw ay magiging undocumented. Kasalanan ba ng migranteng manggagawa na siya ay maging undocumented? O ang legal system ba ng South Korea ang mali? Ang crackdown sa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walang dokumento na hindi inaayos ang masamang batas at tawagin silang "illegal" dahil sa hindi pagsunod sa masamang batas ay hindi katulad ng mga maunlad na bansa. Hindi ba ito ay tala-gang nakakahiya?

Hindi na ba kailangan ang mg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to ang aking katanungan. Ang mga trabahong ayaw gawin ng mga manggagawang Koreano at ng mga rehistradong migranteng manggagawa ay ginagampana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ng walang dokumento. Kung wala sila, titigil ang lipunang Koreano. Kanino ba tayong nakikipagtalos ukol sa trabahong inaban-

dona natin? Ang pinakamahirap na gawa ay nakaatas sa mga migranteng manggagawang walang dokumento. Ang mg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y babalik balang araw sa kanilang mga bansa. Babalik sila sa mga bisig ng kanilang mga mahal sa buhay at mga kaibigan. Kaya huwag silang paratangan na nakagawa ng malaking krimen dahil lamang sa lumampas sila sa kanilang pananatili, Itigil ang marahas na pag-aresto at hindi makataong paghuli at sapilitang pagpapadeport sa kanila!

Mula noong Pebrero 17, ang Daegu ay nagsasagawa ng isang rally laban sa crackdown sa harap ng Daegu Immigration Office tuwing alas-11 ng Biyernes, at ang mga grupo sa paggawa at karapatang pantao sa rehiyon ng North Daegu ay naghahalinhinan sa pagpoprotesta araw-araw.

Sana ay kumalat sa buong bansa ang protesta sa Daegu. Lahat tayo ay konektado, kaya sama-sama tayong magprotesta sa buong bansa. Kung hindi ka makikipaglaban walang mababago. Sama-sama tayong lumaban para mapabuti ang karapatan sa paggawa at karapatang pantao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Itigil agad ang mga deportasyon! Gawing legal ang mg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waksi ang employment permit system kung saan walang kalayaang magpalit ng lugar na pinagtatrabahuhan. Laban!



Tư vấn miễn phí như nợ lương, tai nạn lao động Công đoàn Lao động Kim loại luôn đồng hành cùng Lao động nhập cư.

Chính sách sai lầm chỉ tăng số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mà không đảm bảo quyền lợi, cần phải thay đổi!

JUNG YOUNGSUP (Nhà hoạt động công đoàn di trú)

Chính sách lao động nhập cư của chính quyền YOON SEOK YEOL chỉ 'tăng con số' chứ không 'đảm bảo quyền lợi'. Chính sách đó sẽ mở rộng cung cấp nguồn lao động nhập cư được ví như hàng hóa mà các khu công nghiệp và chủ sử dụng cần, nhưng điều kiện làm việc khắc nghiệt, việc bóc lột sức lao động và phân biệt đối xử vẫn không được cải thiện.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chỉ tiêu cho phép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nhập cảnh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làm E-9 là 110,000 người. Chỉ trong nửa đầu năm, số người lao động làm theo thời vụ đã tăng lên khoảng 27,000 người. Hơn nữa, ngành đóng tàu thiếu 14,000 người và tuyển hàng nghìn người lao động visa E-7 trong lĩnh vực hàn, điện, sơn. Mặt khác, họ nói rằng sẽ tạo ra hệ thống có thể làm việc hơn 10 năm mà không cần xuất cảnh theo "Chế độ lưu trú đặc biệt" trong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khi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nhất định tại chính nơi mình làm việc. Tuy nhiên, lại không có nhiều kế hoạch cải thiện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tồi tệ cũng như mức độ nhân quyền thấp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Vì chính phủ chỉ lắng nghe yêu cầu của chủ sử dụng, chứ không để ý đến tiếng nói yêu cầu đảm bảo quyền lợi và quyền lao độ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Tuy nhiên, mọi người đều biết nếu không có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thì các ngành chế tạo, nông nghiệp, ngư nghiệp, xây dựng và cả



ngành dịch vụ sẽ không hoạt động hiệu quả được. Do lực lượng lao động trong nước giảm, người dân lại không muốn làm trong các ngành có công việc bần thiêu, nguy hiểm, và nặng nhọc nên kinh tế Hàn Quốc ngày càng cần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ặc biệt, ngành công nghiệp mà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làm việc trong thời Covid, có nhiều chủ sử dụng ở nhiều nơi lao đao vì thiếu nhân lực. Vai trò quan trọ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ược khẳng định trong thảm họa Covid. Vậy mà tại sao Chính phủ Hàn Quốc lại không cải thiện và đảm bảo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Hay họ nghĩ rằng, chỉ cần tăng số người lao động và coi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như cỗ máy hoặc nô lệ làm việc là được.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cũng là con người, là người lao động. Họ là thành viên cùng một xã hội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xã hội Hàn Quốc. Phải đảm bảo ký túc xá, một nơi ăn ở có thể sinh sống đúng như một con người. Phải đảm bảo an toàn lao động để không bị thiệt mạng vì tai nạn lao động. Phải áp dụng đúng luật để có thể nhận đủ lương và không bị nợ. Thi hành luật chống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ể ngăn chặn đối xử phân biệt, mắng chửi hay đánh đập. Phải đảm bảo quyền lao động cũng như quyền lợi của tất cả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Chính sách sai trái cần phải chỉnh sửa. Chúng ta hãy lên tiếng và hành động cùng với các Tổ chức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và Công đoàn lao động.

"Bộ Lao động hãy giới thiệu nơi làm việc cung cấp cơ sở nhà ở hợp pháp chứ không phải nhà kho, căn chòi!"



KIM YICHAN (Nhà hoạt động tại [Bến ga dừng nghỉ])

Cuối năm 2020, Bộ Lao động đã công bố kết quả điều tra hơn 70% lao động nhập cư đang sống nhà tạm bợ như nhà làm bằng tấm Panel (cách nhiệt) hoặc nhà bằng Container. Sau hơn 2 năm trôi qua nhưng cũng không có tin tức gì về việc sẽ cải tiến nơi ở như thế nào. Tức là, hơn 70% các lao động nhập cư vẫn đang làm việc và sống ở nơi không phải là nhà.

Xã hội Hàn Quốc đang ở trạng thái "bờ vực dân số". Tỷ lệ trẻ sinh đạt 0.7% giữ kỷ lục thấp nhất thế giới. Ngoại trừ khu vực thành phố lớn như Seoul và khu vực đô thị, dân số tham gia hoạt động kinh tế đang giảm dần. Thanh niên trẻ không tìm công việc tại các công ty sản xuất nhỏ, ngành nông nghiệp và chăn nuôi, và ngành xây dựng. Tại khu vực các công ty này thường không có nhà dân ở, và không có đầy đủ tiện nghi cho sinh hoạt.

Thế nhưng, hầu như các lao động nhập cư chỉ tìm được công việc ở khu vực nông thôn, hoặc vùng ngoại ô của thành phố có dân số trẻ đang giảm. Người lao động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làm việc chỉ được giới thiệu việc làm ở những nơi như thế này. Nếu làm việc ở công ty mà không được sự đồng ý thì sẽ bị tước đoạt visa. Khu vực bạn đang sống thì chủ sử dụng cung cấp nơi ở như thế nào? Nhà đó được đăng ký là "cơ sở nhà ở" không? hay nhà tạm thời làm bằng tấm Panel(cách nhiệt), nhà bằng Container hoặc nhà kho?

Chính phủ Hàn Quốc thông báo rằng sẽ tiếp nhận 110,000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mới nhập cảnh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Nếu tính tổng cả lao động thời vụ thì càng nhiều lao động nhập cư đến Hàn Quốc để làm việc. Tức là, họ sẽ đưa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làm việc ở những khu vực mà chỗ ở không phù hợp. Liệu đột nhiên có

thể xuất hiện những ngôi nhà được đăng ký hợp pháp không? Cuối cùng thì các chủ sử dụng cũng sẽ buộc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sống trong những phòng chật hẹp hiện có và càng tăng các nhà ở tạm thời không được cấp phép.

Bộ Lao động Hàn Quốc là cơ quan chịu trách nhiệm giới thiệu việc làm cho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họ đã nhanh chóng đáp ứng yêu cầu của phía chủ sử dụng là 'sức lao động' và quy mô áp dụng được tăng lên đáng kể, sức lao động đó sự thật chính là con người, nhưng họ đang cố gắng nhắm mắt làm ngơ như không biết gì.

Chúng ta phải tiếp tục yêu cầu và lên tiếng: "Chúng tôi không phải cỗ máy, máy nông nghiệp, vật liệu sản xuất! Chúng tôi là con người. Hãy đảm bảo việc làm và có thể sống trong một ngôi nhà đúng nghĩa, chứ không phải là nhà tạm bợ nơi mà con người không thể sinh sống.

Phản đối truy bắt trực xuấ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BHP)



KIM YONGCHUL (Trưởng ban tư vấn khu công nghiệp SeongDeo, chi nhánh Daegu Công đoàn Lao động Kim loại)

Ngày 26 tháng 2 Bộ tư pháp đã công bố sẽ bắt trực xuấ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Lần này thời gian 2 tháng, từ ngày 2/3 ~ 30/4 với sự truy bắt phối hợp của Chính phủ. Đặc biệt, lần này sẽ chủ trương truy bắt tại nơi làm việc. Trong vòng 3 năm dịch Covid, do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nhập cư nên các vùng nông thôn, công xưởng, các ngành dịch vụ đã gặp nhiều khó khăn. Tuy nhiên, giờ dịch Covid được dỡ bỏ, thì lại đưa chế độ tuyển dụng số lượng lao động mới quy mô lớn và trực xuấ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đã làm việc một cách thầm lặng và cực nhọc trong

đợt dịch Covid vừa qua. Thật đúng là khi cần thì để ở lại, không cần nữa thì bắt trực xuất, Chính phủ Hàn Quốc thật dã man.

Hiện tại có khoảng 400,000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đang cư trú ở Hàn Quốc. Tại sao họ cư trú không giấy tờ, chúng ta cùng tìm hiểu nhé.

Theo quy định của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thì người lao động không được phép chuyển đổi công ty nên khi rời công ty sẽ trở thành người không giấy tờ. Ở nông trại cho dù làm đêm hay làm thêm giờ cũng không nhận được trợ cấp. Vì vậy, lương chỉ được một nửa so với làm việc ở nhà máy, nếu mà họ rời nông trại không được sự cho phép của chủ sử dụng sẽ trở thành người không giấy tờ. Việc trở thành người không giấy tờ đó chỉ là lỗi sai của người lao động sao? Chứ không phải hệ thống luật của Hàn Quốc sai sao? Việc không sửa đổi luật xấu, không tuân thủ luật xấu là 'bất hợp pháp' nên truy bắ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điều này có đúng với một nước phát triển như Hàn Quốc không?

Xã hội Hàn Quốc thật sự không thấy xấu hổ à? Tôi muốn hỏi rằng: Hàn Quốc không cần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chứ? Công việc mà lao động Hàn Quốc cũng như lao động nhập cư hợp pháp né tránh thì đó là công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Nếu không có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thì kinh tế xã hội Hàn Quốc sẽ đình trệ. Chúng ta đang tranh cãi với ai về công việc? Công việc hiện trường khắc nghiệt nhất lại là phần của lao động di trú không giấy tờ. Một lúc nào đó họ cũng quay trở về quê hương họ. Sẽ quay về với gia đình thân yêu và những người thân. Chính vì vậy đừng đối xử với họ như người tội phạm nghiêm trọng chỉ bởi vì cư trú quá hạn cho phép, và bây giờ hãy ngừng ngay việc truy bắt trực xuất một cách bạo lực và phản nhân quyền.

Ở khu vực Daegu đã tổ chức cuộc biểu tình phản đối cuộc truy bắt trước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o lúc 11:00 thứ sáu hàng tuần, kể từ ngày 17/2. Các đoàn thể nhân quyền ở khu vực Daegu, Gyeongbuk thay phiên nhau biểu tình mỗi ngày. Tôi mong rằng cuộc phản đối ở Daegu sẽ lan rộng trên toàn quốc. Chúng ta kết nối với nhau cùng biểu tình trên khắp đất nước. Nếu không đấu tranh, chắc chắn sẽ không thay đổi. Hãy cùng đấu tranh để cải thiện quyền lao động và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Hãy ngừng ngay việc truy bắt trực xuất! Hãy hợp pháp hóa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Hãy hủy bỏ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mà không được tự do chuyển đổi công ty! Chúng ta hãy cùng đấu tranh!



Report of unpaid wage, labor counseling, and nationwide free counseling Korea Metal unions are with migrant workers.

Change The Wrong Policy to Increase MWs without Securing Rights!

In Yoon Seok-yul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migrant workers, there is only extending the number of workers instead of securing their rights. Treating such workers like materials, it vows to supply as many workers as the industrial sites and employers demand into the sites, however, it has not improved the severe working conditions of them who are bothered under labor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his year's quota of workers to import under E-9 visa of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to as many as 110,000, the highest number ever in history. Furthermore, 27,000 agricultural workers will enter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t also tries to place some thousand workers in the welding, electricity, painting fields into the industries as it states that the shipbuilding industry currently lacks about 14,000 workers.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o make a new system that such workers who have worked for a designated term constantly can prolong their period of stay to longer than ten years without leaving Korea by establishing "special measure of long-term stay" system in addition to EPS.

Though, it has rare plans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level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migrant workers but hears the voices of employers. But we all know very well that without migrant workers, neither manufacturing, agricultural, fishery, construction, or service industries in Korea can work



smoothly. As the workforces of native Koreans have been decreased and they don't like to work at the 3D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jobs, the Korean economy has come to need more and more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employers in every corner of the industries have encountered troubles as they have lacked the workforce of migrant workers. It was reaffirmed that migrant workers were so important during the disastrous period of COVID-19. Then, why has the government neither improved nor secured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only increase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doesn't it consider migrant workers as machines or slaves who do nothing but only work? Migrant workers are the same human beings and workers. The sam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who work and live here. The freedom to change their workplaces should be guaranteed. The dormitories in humane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Labor safety measure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the workers do not die from industrial disasters. The laws should be applied duly so that workers can receive their wages properly without being unpaid. A discrimination prevention law should be enacted so that they are protected from verbal abuse, violation, or discrimination. All the working migrants'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he wrongful policies should be changed. With migrant workers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let's act and voice out together. Jung, Youngsub, Activist at Migrant Workers Union

No Warehouse, No Rural Hut, But MOL Should Arrange a Workplace of Decent Housings!



At around the end of 2020, the Ministry of Labor announced that over 70% of migrant workers lived at temporary housings which were built with 'sandwich panels' or 'containers'. It has passed longer than two years since then, however, I have not heard any news on how it has been improved. It means that still around 70% of migrant workers work and live at 'places that are not houses'.

They say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demographic cliff. The birth rate of the country is 0.7%, the lowest in the world. Except for big city areas such a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young native residents do not like to work at the job sites of 'small 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agriculture and dair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industry' anymore. At the regions where those industries are, houses for living humanly are seldom and even lifestyle

amenities are little, too.

Migrant workers mostly can find their jobs at suburban or rural areas where young population is decreasing. EPS workers are introduced to work at such places, and if the workers are not employed at their designated workplaces, their visa status would be terminated. Where are you being employed and what kind of housing do you have now? Is that a house registered as a 'residential house' or a temporary house built with a container or sandwich panel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newly introduce 110,000 EPS migrant workers this year. If the seasonal workers are added, much more workers will influx to Korea for migrant labor. This means, on top of the employed places in different regions and villages where decent dormitories are not prepared currently, the government will bring more migrant workers for working. Can they suddenly prepare

'legitimate' and 'registered' housings at such areas? Accordingly, the employers would place more workers in the existing small rooms and build more temporary housings. The quality of life and health of migrant workers could be worse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Labor, which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migrant workers, quickly responded toward the employers' demands asserting more 'labor force' is needed to extend the size of recruitment a lot, however, the ministry tries to look away from the fact that the labor force is just 'human beings' and 'workers'.

Migrant workers may demand together, 'We are not machineries, farm machines, or manufacturing materials!', 'We are humans!' and 'Guarantee to provide the workplaces with the housings we can live humanly, not temporary huts where humans can't live!' Kim Yichan, (People of Earth's Station Activist)

We Oppose Crackdown & 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Kim, Yongchul (Chief Counselor, Counseling Center of KMU Daegu Branch, Seongseo Industrial Complex)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February 26th that it would operate crackdow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referred as "UMW" hereafter). The joint crackdown enforcement by multiple governmental bodies this time will last for two months from March 2nd to April 30th. They plan to have some special operations at the worksites.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for three years, the industrial sites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have seriously suffered from the shortage of migrant workers. But now, as the COVID-19 situation has been eased, it kicks out the UMWs

who have worked silently during the hard COVID-19 period while it accepts hundreds of thousands of new migrant workers.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which utilizes the migrant workers when needed and discards them when not needed, is brutal. Currently there are about 400,000 UMWs. Let's look onto the reason why they have become undocumented. Because the change of worksite is not allowed under EPS, a worker becomes undocumented if he or she runs away from a workplace. At the rural area, no allowance is paid even when they do night work or overtime work. If they escape from their designated workplaces because the level of wage is half than that of the workers' at factories, they become undocumented.

Is becoming an undocumented worker due to the fault of such individual migrant worker? Or is the legal system of Korea wrong? It's not something that an advanced country should do; conducting crackdown toward UMWs indicating them 'illegal' because they do not keep the wrongful legal system while not revising such law first. Isn't this really a shameful thing?

Don't they need any UMWs? I really want to ask this question.

The jobs that both Korean native workers and documented migrant workers like to evade are the jobs of UMWs. Without UMWs, Korean society will inevitably stop. Who do we compete with for the jobs? The jobs at the sites with the worst condition are left for UMWs. UMWs will eventually return to their home someday. They will rejoin their beloved families and friends. Thus, do not treat them as big criminals and stop the crackdown which arrests them in a violent way and then kick them out forcibly against humane way now. In Daegu, rallies to resist the crackdown have been held before the Daegu Immigration Office at 11 in the morning every Friday since February 17th, and various labor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taking turns for protest demonstrations.

I hope these protest rallies will spread out nationwide. We all are connected, so let's do this protest nationwide together. Without protest, nothing is changed. Let's make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mproved with our struggle.

Stop the forcible crackdown and deportation right now! Legitimiz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bolish EPS that lacks the freedom of transfer of worksites! Fight!